

창교절유시문

총지종의 종지를 받들어 불철주야 수행과 교화에 전념하시는 전국의 승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총지종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지해 주시는 전국의 교도 여러분! 그 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종단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종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지종 종령 효강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신 종조 원정대성사님과 작고하신 선대 여러 스승님들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총지종이 정통불교의 대광명을 이 땅에 드리우고자 개산한 지 3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간난신고를 증생구제와 불국정토의 건설이라는 대원에 의지하여 합심과 단결로써 헤쳐오면서도, 흔들림 없는 종지로 오늘의 우리 총지종이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이제는 교세확대를 위하여 모든 구습을 철저히 폐하고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화방편을 마련하여 대처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 종단의 성공여부는 그 종단의 교세가 어떠한가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엄정한 교상과 사상이 확립되어 증생교화

의 표준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외형적인 교세도 한 종단이 영구히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에서 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종단의 교세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부득불 새로운 교화방편의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열악한 증생들의 근기에 부응하여 사원형태와 불단의 양식에 변화를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아울러 우리의 기본이체인 존재법을 중심으로 모든 의례와 의식에 장중함을 더하여 신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의와 법구의 개신 및 보완은 말할 것도 없습니

교화방편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며

세계에 발돋움할 웅대한 종단을...

단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종조께서 뿌리고 가신 불교의 씨앗을 더욱 잘 기우어 평실상부한 정통 불교종단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우리의 교화방편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도리어 퇴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돌아보면 이제 우리도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앞섭니다.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제생의세의 개화된 방편을 교화에 적용하지 못하고 우리만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흔적에 머물러서는 발전이란 까마득한 남의 일 같게만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 종단이 창종 당시의 불꽃같은 교화의 열의를 살리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종령인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불합리한 법령과 법규를 개정하여 문호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대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인재를 확보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업을 실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직자 여러분들의 새로운 각오입니다. 교화를 발미로 일신의 안념만을 꾀하고 수행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한 이 모든 작업도 허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실과 정직 그리고 끊임없는 정진으로 여러분들의 인격이 빛날 때 우리 총지종은 진정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과거의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납시다. 그리하여 세계에 발돋움할 웅대한 종단을 만들어 세 계만방에 불교의 수승한 법을 펼치시려고 하신 종조의 유지를 받들고 역만 증생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합시다.

총기 33년 12월 24일

“부처님의 자비실천”

총지종 정각사, 어르신들 위로잔치

총지종 정각사(추교 경원)는 스승님들과 교도들이 주체가 되어 지난 11월 19일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300분에게 점심공양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을 위로하였다.

이날 행사는 정각사 스승들과 교도들이 실시함으로써 보시한 금액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총지종 역사상 처음으로 일선사원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루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정각사주교인 경원정사는 “몇 년 전부터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주변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으나 오늘에야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앞으로 정기적인 행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행사도 동해중학교 풍물패와 만다라 합창단을 초청하여 위안잔치를 마련하려 하였으나 처음 시행한 행사라 조촐하게 어르신들을 대접하게 되어 서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정각사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공양하고 있다.

운하지만 다음 행사에는 조금더 큰 규모로 어르신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위안잔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정각사에서 진수성찬으로 식사를 대접받게 되어 너무 고맙고, 오늘에야 정각사란 절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종교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자주 개최하여 이웃과 함께한 종교를 실현하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제공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한편 총지종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각 사원별로 지역포교활동을 기하기 위해 종단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일선사원은 자원봉사단구설 및 경로잔치, 양로원, 고아원 방문 등 사회봉사활동을 펼치며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교화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편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총지종 수명관정수계법회 원만회향

불타의 자비와 보살정신을 실천



부산 정각사에 설치된 삼매아래계단에서 교도들이 수명관정수계법을 받고 불제자로서의 삶을 다짐하고 있다.

총지종(총리원장 우승)은 11월 19일에는 서울 총지사에서 서울경인교구, 충청전라교구 교도 130명을 대상으로, 11월 25일에는 부산 정각사에서 삼매아래계단을 설치하고 대구경북교구, 부산경남교구 교도 450여명을 대상으로 수명관정수계법회를 봉행하였다.

이 법회는 개단선언. 법계의 모든 증생을 위하여 불성 삼매아래계를 지구하오니 실천대로 수행하여 영원히 생사

를 끊고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예 불게송 창송. 육근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마음의 거울이 빛나고 만다라의 장엄함이 나타나고, 다섯 지혜의 등불로 원륜을 밝히는 삼취 정계송 창송. 미래제가 다할 때까지 삼신 복전계에 귀명하고, 방광대승법에 귀명하고, 불퇴전보살승에 귀명하는 수계자 귀명참회, 자비로써 우리들을 위하여 불성계를 받게하고 시방정찰중의 모든 대보살에게 동화 반려가 되기를 봉청하는 대아사리 청사. 유가삼밀, 교법을 준수하고 모든 계행을 실천함으로써 수행자의 모범이 되도록 청원하는 수계권청문 봉독. 전개사리리 향수

및 서수가지. 삼보를 공경하고 정진함에 게을리 하지 않고, 인욕하며 탐욕을 버리고 인색함이 없는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수계심덕교설. 모든 제자들은 부처님의 규율을 지키는 설율의계와 선을 행하는 십선의계 및 증생을 교화하고 증생의 이익을 다하는 요익유정계인 삼취정계교설, 정법과 보리심을 버리는 것을 금하고 일체증생을 요익하지 못한 행동을 버리는 사중금계, 십선계, 십무진계. 모든 불보살과 성종 앞에서 향수를 마시고 대보리의 원을 퇴실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하는 전개사리리 서수인지문설독. 관정 및 서수 수여. 수계증 및 불명계 수여. 선서문 봉독. 반야심경. 폐단선언으로 진행되었다.

이 법회에 참석한 교도들은 이번 수명관정수계법회를 계기로 불법과 인연을 맺어 진행행자로 새로 태어났으며, 부처님과 최상승 삼밀교법에 일심귀명하고, 인과응보의 진리를 체득하여 이 단사실에 미혹되지 않고, 정법과 정도와 정의를 굳게 세워서 현세정화에 정진하고, 화합과 단결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불타의 자비와 보살정신을 본받아 증생을 제도하며, 모든 계법을 미래제가 다하도록 어짐없이 실천하여 보리심을 성취하는 서약을 하였다.

총지종 캠페인

어려울 때 나누기

요즘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모두들 난리다. 35만명이 넘는 청년실업자와 하루에도 수십군데 문 닫는 가게들, 늘어나는 노숙자, 경제적인 이유로 해체되는 가정 등 요즘의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 주위에서 흔히 보이고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복지시설이나 수용시설, 저소득 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을.겨울은 유난히 더 추울 것 같아 걱정스럽다.

인도의 성자 간디가 기차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은 기차출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역에 도착했고 출발시간이 지난 기차가 서서히 출발을 시작하는 바람에 급하게 간디와 그 수행원들은 뛰어서 겨우 움직이는 기차에 올라 탈수가 있었는데 간디는 뛰다가 그만 신발이 벗겨져 기차역 플랫폼위에 한 짝을 남겨두고 한쪽 신발 신고 기차를 타게 되었다. 기차는 이미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신발을 찾기 위해 다시 내렸다가 타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때 간디는 신고 있던 한쪽 신발을 벗어 나머지 한쪽 신발이 떨어져 있던 플랫폼으로 던졌다. 그리고는 맨발로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수행원 한 사람이 간디에게 물었다. 왜 신고 있던 한쪽의 신발마저 벗어 던졌냐고, 그러자 간디는 빙그레 웃으며 답했다. 누군가가 그 신발을 주었을 때 양쪽이 다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현재 자신의 처지가 어려우 주위의 도움을 받았다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시 회향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사람의 도리 일 것이다. 그러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짐은 어떠한가 하는 걸까, 간디가 던진 신발은 누군가가 주어서 신었다면 그는 간디가 나머지 한쪽을 벗어 던진 사실은 아마 모를 것이다. 하지만 달리는 기차에 겨우 몸을 실은 급박한 순간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한 짝의 신발보다 짝이 맞는 한 켤레의 신발을 가질 수 있게 하고자 했던 간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워져 모두가 힘들 때 자신의 신발 한 짝마저 던져버린 간디의 그 마음을 한 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

죽비소리

옛적부터 익혀 온 예속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에 얽히고 설킨 잠깐 수그러들다가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 마치 하루같이 학질과 같나니

다만 뜻과 절개를 굳건히 지니고 자기의 몸을 꾸짖어 게을리 하지 말고, 그릇됨을 알았거든 선한 데로 옮겨서 고치고 누우치고 부드럽게 만들지니라 이렇게 부처님께 닦다 보면 관하는 힘이 더욱 깊어지고 갈고 닦을수록 수행의 문이 점점 밝아지니라.

『계초심학인문』중에서

불교총지중은

보문총체총덕(普門總體總德)의 이불(理佛)이신 법신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관세음보살의 본심진언인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흠을 본존으로 모시며, 주옥같은 진언(眞言)과 정확한 인계(印契), 엄격한 의례(儀軌)와 사중수법(四種修法)을 비롯하여 유가삼밀 관행법으로 진언을 엄송함으로써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진언의 세계에서 입장을 소멸하고 즉신성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불교총지중
The Buddhism chongjijong



사설

종조 원정대성사의 창종정신을 기리며

본종의 종조이신 원정대성사를 기리기 위한 종조기념관이 '원정 기념관(苑淨紀念館)'으로 명명되어 총지사에서 개관하게 된다. 오랫동안 공을 들여 준비해온 원정기념관은 원정대성사의 일생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한국의 현대미술이 융성하게 된 경위를 사진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현대미술의 역사를 알리는데 반드시 원정기념관을 참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다.

금번 원정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우리 총지종의 전 교도들은 다시 한번 대성사의 숭고한 창종 이념을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각오로 개인의 수행과 종단의 발전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원정 대성사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열고 극락정토를 이 땅에 구현하겠다는 숭고한 이념으로 우리 총지종을 창종하신 지도 여든 32년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 종단은 조용한 가운데 내실을 기하여 이제는 한국의 그 어떤 종단에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종단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비숙한 시기에 창조했으면서도 월등한 교세를 자랑하는 국내외의 몇몇 교단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의 조그마한 성취에 자만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외래 사조의 무분별한 도입과 불자들의 태만으로 바닷 앞의 등불처럼 가물거리며 희미해져 가는 한국불교의 불꽃을 오늘에 다시 되살리고 요원의 불꽃처럼 일어났던 지난날의 밀교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원정대성사의 창종 정신이 지금에 와서는 많이 퇴색된 느낌이다. 특히 일부 승지자들은 원정대성사에서 남긴 가르침을 외형적인 것만 고루하게 답습하려고 하면서 성사의 진정한 뜻은 왜곡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원정대성사께서는 분명히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를 주창하시면서 생활불교를 우리 종단의 가장 큰 특색으로 내세우셨으나 그러한 정신은 도리어 형제화되어 생명력을 잃고 말았다. 원정대성사께서는 이러한 혼탁한 시대에 제생의세하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정한 생활불교가 되도록 유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전의 생각만 고집하며 종단의 발전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밀교야말로 대승불교의 정점에 선 불교의 예기스라고 할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밀교의 정점을 교회의 방편상에서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과거의 관념에 얽매어 교회의 부진을 초래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우리 종단은 원정대성사께서 제시하신 뛰어난 종지와 숭고한 창종이념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화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단일하게 대처한 점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종조의 유지를 받든다는 미명하에 단일에 머물면서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화 방법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총지종의 장래는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종조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교세확장으로 이 훌륭한 정통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보급하는 것만이 진정한 종조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며 불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임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총지종의 종지가 더욱 널리 알려지고 영원토록 이 이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종지의 체(體)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그 상(相)을 새롭게 단정하고 용(用)을 극대화하여 종생들의 근기에 맞는 법을 펼치는 것이다.

종조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원정대성사의 창종 정신을 다시 일깨우고 총지종이 명실상부한 정통불교 종단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종단의 주축이 되는 승단이 종조의 유지를 진정으로 빛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무사안일과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의 화합을 위하여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초발심의 열의에 불을 지피어 효율적 포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총지종이 세 계만방에 그 이름을 드날리고 역만 중생을 제도하게 될 때에 종조의 창종이념은 더욱 빛이 날 것이다.

“나누는 삶이 부처님의 세계”

강남자활후견기관 개관식



◇우승 트리원장을 비롯하여 서울경인교구 스승님과 교도, 강남구청 복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강남자활기관 개관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강남자활후견기관 개관식을 지난 11월 11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총지종 트리원에서 우승 트리원장을 비롯하여 서울경인교구 스승 및 교도, 강남구청 주윤중 사회복지과장, 서울자활협회 송권 부지부장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총지종 의식에 따라 총지사 서원당에서 개관식을 진행하고, 자활기관현장 답사, 피로연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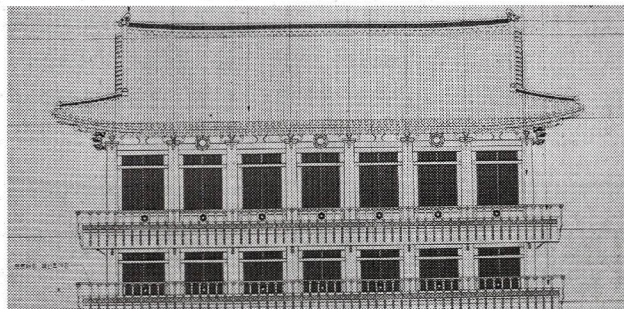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며 트리원장인 우승 총사는 인사말에서 “보시는 재물이 진정한 나의 소유자이며, 재물뿐만 아니라 사랑도

진정으로 나눌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경전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특정 종교나 학연, 지연에 관계없이 어려운 이웃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달려가서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눈이 부실 정도의 환한 밝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굳건하게 자신의 앞날을 개척하고자 하는 자활 대상자들의 용기에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강남자활후견기관은 2000년 10월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으로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차원에서 설립됐으며, 자활후견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산후, 간병, 봉제, 차량광택 및 세차, 자전거 이동수리 등으로 강남지역의 근로 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자활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부산 덕화사 신축공사 착공

12월초, 연흥건설시공



◇부산지역 밀법을 홍보할 덕화사 신축 건물도면.

총지종은 부산 덕화사(주교 대원) 신축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11월 22일 트리원에서 연흥건설과 공사기간 1년으로 공사일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2월 초부터 착공하게 된다.

부산 덕화사 신축공사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우승 트리원장은 “이번 덕화사 신축공사 업체선정은 지금까지 사원신축공사 업체선정 중에서 가장 공정하게 선정하였으며, 또한 트리원에 근무하는 건설전문 중무원 3명을 1주일간 합숙하여 각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비교, 검토하여 타당성을 분석하였고, 업체선정시에도 전담 건설 위원들이 견적서와 평가서를 바탕으로 공

정하게 선정하였기 때문에 차후 공사진행시에도 큰 문제점 없이 공사가 진행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트리원 관계자는 “덕화사 사원신축 시공업체 선정은 종단적 차원에서 공정성을 기하여 평가하였으며,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여 한 걸음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밝히며, “최근에 업체선정 과정에 대해서 지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모두가 종단을 걱정하는 애증심에서 발로된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사원을 신축함에 있어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종단적으로는 철저한 관리, 감독과 시공사는 성실한 태도로 공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덕화사는 이번에 한옥식 3층건물의 신축공사로 인해 보다 더 교화가 활성화되어 부산지역에 밀법을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알림방

- 총지종 종조 『원정기념관 개관식』을 12월 2일 총지사에서 봉행합니다.
- 총지종 창교절 불사를 12월 24일 각 사원별로 봉행합니다.
- 신규승수후보자 및 신규중무원 1차 교육을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트리원에서 실시합니다.

신문고

종단산하기관 운영 · 관리 활성화방안

불교계 및 각 종교단체들은 포교활동과 차원에서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지기반을 확고히 다지며 교세를 확장해 가고 있다. 특히 각 종교계는 대학교를 설립하여 인재양성의 인프라 및 교학연구, 사회봉사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지종도 부처님의 자비실현과 중생구제의 이념을 실천하고, 종조님의 인재양성과 후학육성차원에서 10여년 전에 대학원 재단이 운영하던 부산 동해중학교를 인수하여 명실공히 사학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1999년에는 역사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서울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운영받아 사회복지체계의 기반을 세우고 사회복지활동의 태동을 알리며 종단의 홍보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총지종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혔다.

그러나 문제점은 처음부터 운영방향의 지표가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았고, 종단적으로도 이러한 기관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인재를 기르지 못하여 종단의 홍보와 관련하여 아쉬움이 남고 있다. 또한 종단의 홍보 및 후학양성, 사회복지활동을 통한 종단의 위상을 강화하였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성운스님이 조실로 있으며 세계적인 불교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대만의 불광산사는 3개의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성운스님은 인재양성과 후학육성을 위해 대학의 설립을 염원하여 왔었고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산하기관과 총지종 스승님 및 교도들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종단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애중심과 더불어 각 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리라 본다.

지난 달부터 트리원에 강남자활후견기관이라는 단체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회복지의 활성화로써 종단대학으로써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불광산사가 교세를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종단적으로도 종단산하기관에 대한 운영방침과 더불어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지난 강공에는 승단의 전 스승님들을 모시고 동해중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다. 종단적으로도 산하기관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 외부인사의 의견청취, 타 단체의 자료수집을 통해 자체적인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종단산하기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것인가? 우선 종단내부적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장점을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종단내부적으로 이들 기관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 정부, 기업 및 모든 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기관의 최고 경영자의 이해와 철학, 사고방식에 따라 그 기관의 운영방향과 정책이 결정되고 기관은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총지종의 종지를 세우고, 종교관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종단에서 오랫동안 수행하고, 이들 기관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적합한 인물을 찾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둘째는 이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을 어떻게 총지종 식구로 흡수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타 종교단체의 예를 보면 그 단체의 산하 기관에서는 단체에 대한 자신의 종교관을 확립시켜야 하고, 신도 및 신도들의 자녀들을 위한 사학의 자격요건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산하직원에게 연수를 실시하여 종교관 및 이념을 확립시키고 있다.

총지종도 매년 2회는 아니더라도 1회 정도는 이들 산하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트리원에서 불교의 교리 및 밀교, 총지종의 수행의식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산하기관과 총지종 스승님 및 교도들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종단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애중심과 더불어 각 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리라 본다.

중요한 것은 지난 과거의 일은 자신들의 잘못한 허물과 오류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 자책하는 것으로 무마될 수 있을 지라도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산하기관에 대한 운영방침 설정, 산하기관에 대한 재평가 실시, 협력관리 차원에서 산하직원 연수를 실시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들 기관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2004년 10월 29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

개천사 권영남 10,000	만보사 배정임 10,000	실보사 방원순 10,000	정각사 이란이 10,000	회음사 김현미 10,000
개천사 김동근 10,000	만보사 박선희 10,000	실보사 송희준 10,000	정각사 이수임 5,000	회음사 박윤정 10,000
개천사 김옥희 10,000	만보사 양관식 20,000	실보사 안경숙 5,000	정각사 조현필 5,000	회음사 서준영 5,000
개천사 김인호 10,000	만보사 이설강 10,000	실보사 이순옥 5,000	정각사 황영숙 20,000	회음사 송영근 10,000
개천사 박병선 5,000	밀인사 김덕배 10,000	실지사 박형성 5,000	정심사 박옥란 40,000	회음사 수현 50,000
개천사 이장섭 5,000	밀인사 무명씨 10,000	실지사 이숙례 5,000	정심사 오윤보 5,000	회음사 최영미 10,000
개천사 이희권 10,000	밀인사 신대식 5,000	실지사 정경자 5,000	제석사 교도일동 200,000	회음사 하수진 10,000
관성사 이혜원 5,000	밀인사 신동의 5,000	실지사 정연수 5,000	총지사 김효숙 10,000	회음사 노재현 10,000
관성사 정인순 10,000	밀인사 신동희 5,000	실지사 정우석 5,000	총지사 양철미 20,000	회음사 라원강 30,000
관성사 황성녀 20,000	밀인사 이연수 10,000	운천사 김부자 20,000	총지사 이인성 60,000	회음사 무명씨 5,000
관음사 신막심 10,000	밀인사 이재호 10,000	운천사 박보경 20,000	총지사 지심행 10,000	회음사 무명씨 10,000
기로원 대관 10,000	밀인사 이혜성 5,000	운천사 이형란 20,000	혜정사 박종석 10,000	회음사 박남섭 40,000
기로원 대자행 10,000	백월사 박삼순 20,000	자석사 우바이 70,000	혜정사 수중원 20,000	회음사 안화자 10,000
기로원 법장화 10,000	백월사 이갑진 10,000	자석사 조창환 40,000	혜정사 정길오 5,000	회음사 이희수 5,000
기로원 사홍화 10,000	백월사 임승민 6,000	정각사 구정희 20,000	혜정사 정은선 20,000	회음사 진관사 15,000
기로원 상지화 10,000	성화사 우담바라 100,000	정각사 김정자 10,000	혜정사 조성기 10,000	회음사 허점수 10,000
단음사 박희지 3,000	수인사 김봉기 10,000	정각사 남숙자 20,000	혜정사 지성인 20,000	
단향사 공철봉 3,000	수인사 김진 10,000	정각사 박영주 5,000	혜정사 해보심 20,000	
만보사 민순분 10,000	수인사 한애숙 20,000	정각사 박훈취 10,000	회음사 강순란 5,000	

후원의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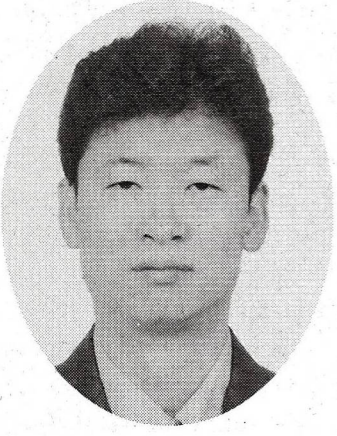
후원금 납부방법

-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 통산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총지칼럼

비현실적 계율이 승려들을 자기 분열로 이끈다



김종인

▲(현) 고려대학교 BK21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 연구
교수 철학 석사 (1994)
▲스토니브룩 대학교 불교 연구로
철학 박사 (2002)

불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도 엄격한 계율을 가지고 있다. 불교의 계율이 엄격한 것은 불교가 이성적 자각과 수행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원래 가르침은 신이나 신을 매개하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권능도 부정한다. 오로지 이성적 자각을 통한 개인의 철저한 자기완성을 통해서만이 궁극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삼학(三學), 즉 계율, 선정, 지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삼학 가운데서도 계율의 실천이 가장 기초가 된다. 계율의 실천 없이는 선정도 불가능하고, 지혜도 얻을 수 없다. 자발적인 계율의 실천 없이는 한 발짝도 자기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다.
자비로운 신이 있다면 탐욕스럽고 나약한 인간조차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도를 통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청하면 절대 권능으로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신은 넓고 넓은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해탈시킬 수 있다. 한 번이라도 계율을 어기면 그만치 나의 자기완성은 퇴보하거나 멈추고 만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재차 나아갈 수는 있으나, 그 누구도 내가 계율을 어기는 데서 비롯된 퇴보와 멈춤에서 구원해 줄 수는 없다.
계율의 실천이 이처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교인들이 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불교인들이 대승불교의 진속불이법(眞俗不二法)과 선(禪)불교의 깨달음에 대한 속된 이해

며, 둘째는 인간의 욕망을 공공연히 예찬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적 환경이다.
진리와 세속이 틀이 아니라는 말에는 승단이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고립된 삶을 살고 있는 승려들의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경험으로 깨달음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들어 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세속인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다른 한편으로는 승려들에게 일상의 삶에서 유리되지 않은 균형 잡힌 삶의 길을 열어

것은 깨닫지 못한 소치이며, 계행에 연연하지 않는 무애자재의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로까지 발전한다.
더욱이 선승들은 일반 사회와 유리된 산 속의 선방, 심지어는 선방에서조차 유리된 고립된 암자에서 참선 수행을 하는 탓에 항상 비상식적인 사고에 빠져들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일부 승려들이 계행을 안 지키는 것은 말할 것

은 도덕적 이념을 통해서 욕망에 일정한 통제를 행하였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불교의 계율 자체가 사회의 도덕적 이념과 근원에서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불교의 계율은 그 사회 일반도덕률의 이상적 표준이었다. 승려는 일반인보다 조금 더 욕망을 억제하는 사람들이지, 전혀 이질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불교의 계율은 사회 일반의 가치관과 서로 모순된다. 전자는 욕망을 철저히 부정하고 후자는 욕망을 예찬한다. 이 모순되는 두 가치관 중에서 절대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은 불교의 계율이 아니라 욕망을 예찬하는 사회 일반의 가치관이다.
자본주의에서 욕망은 생명력으로 예찬된다. 이러한 생명력으로서의 욕망을 부정하는 도덕률은 낡은 이념의 탈을 쓴 우선으로 본다.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위선자이거나 생명력이 약화된 불구자가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계율을 지닌 승려가 일반인들의 가치관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가치관에 이끌려 계율을 파기하게 되었다.
많은 승려들이 욕망을 긍정하는 자본주의의 세속적 가치관에 이끌려 계율을 파기하고서도 이를 해괴한 불이론(不理論)과 무애자재(無礙自在)의 논리로 변명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변명이 자기를 속일 수는 없다. 결국 승려들은 자아의 분열을 일으켜 자기파괴적 행위를 하게 된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엄격한 계율의 실천을 맹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욕망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종법상 비구계를 지키는 비구승만을 인정하는 종단인 조계종 승려들 가운데서 자아분열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엄격히 계율을 실천하는 승려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오늘날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서는 특별한 천성을 타고나지 않고서는 불교의 전통적인 계율을 완벽히 지킬 수 없다. 승려들의 이러한 자아분열을 막고 교단을 건전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계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비구계와 대승계로만 나누어져 있는 계율 체계를 좀더 세분화하여 비구계를 수행을 위한 계율과 교회를 위한 계율로 나누거나, 아니면 비구계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것과 선택적으로 지킬 것으로 나누는 것과 같은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비구계를 완벽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상당수 승려들이 계율의 세계와 욕망의 세계의 정면 충돌을 겪으면서 자기 분열을 이루지 않고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 불교는 개인의 철저한 자기완성을 통한 궁극의 세계
계율의 실천은 자기완성의 일차적 관문
자아분열을 막고 교단을 유지시키기 위해 계율의 현실화 ”

이달의 설법문안

애욕·애착이 삶을 망친다

“재물과 색을 대하거든 정념으로 임하라.”라고 【자경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색, 이것은 인간의 오욕중에서 대표적인 재물(財)과 색(色)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재(財)·색(色)이라하면 식욕·명예욕·수면욕을 포함한 오욕 전체를 지칭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묻고 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야 물론 돈이고 색이지.”
그렇습니다. 돈과 이성이야말로 인간을 즐겁게 만듭니다. 돈을 모으고 돈을 쓰는 재미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신바람이 절로 나고 얼굴도 번쩍번쩍 윤택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가 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까지 합니다. 실로 세속법은 돈이 중심이 되어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사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도 있습니다. 이토록 재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크면 클수록 나쁜 것도 크게 다가오는 것이 세속법의 원리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의 पै가방심은 대부분 돈 때문에 발생합니다. 칼을 생명처럼 여기는 무사가 칼에 맞아 최후를 맞이하듯이 돈을 무기로 삼아 휘두르는 사람은 돈에 의해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부자들은 아침마다 돈 금고를 향해 절하면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돈님, 돈님! 나갈 때는 사람 상하게 하지 말고 나가시오, 사람 상하지 않게 살며시 나가시오.” 마땅히 도(道)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돈으로 해

결하려 하거나 꼭 썬야 할 것에 돈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돈이 사람을 상하게 만든 다음 떠나는 것 입니다.
또 이성은 돈 이상으로 사람을 즐겁고 흐트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과 교제하고 이성과 사랑을 나누는 일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원하던 이성을 얻으면 마치 천하를 모두 얻은 듯이 기뻐합니다. 진정 마음 맞는 사람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백년해로하게 되면 것처럼 행복한 삶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시집 한번 잘못 가고, 장가 한번 잘못 가면 그토록 힘든 삶도 찾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서로 의심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근심걱정하다가 환경 생을 허비하는 백년원수가 되고 맙니다.
재물과 색! 잘 쓰고 좋은 인연으로 만나면 다시 없이 좋은 것이 재색이지만, 잘못쓰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재색처럼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재색의 먹구름이 ‘나’를 감싸면 세상은 일순간에 암흑천지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품은 그대로 근심걱정 보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 아니면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 만일 돈 걱정과 이성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럼 인생의 기쁨인 돈과 이성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근심걱정거리로 바뀌어 버리는 것일까? 바로 ‘내 것’이라는 애착이 기쁨을 괴로움으로 탈바꿈시켜 버립니다.
옛날에 국회의원인 박씨는 제1공화국 시절 경무대 비서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일본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그는 프란체스카 여사와도 말이 잘 통하여 친숙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경무대로 찾아오는 사람을 몇 차례 대통령께 바로 데려간 것

자기는 못산다..... 그러나 어떡하겠나. 당장 보따리를 싸가지고 외무부로 가보게나”
이렇게 하여 박씨는 경무대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어찌 대통령 부부 사이에서만 일어났습니까? 결혼한 분들은 지난날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처음 교제를 시작할 때는 상대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온갖 정성을 다 쏟다가, 막상 시집가고 장가를 가면 서로를 자기 소유물처럼 여깁니다.
“내 애내는 나의 것이다.” “내 남편은 나만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 이렇게 서로를 ‘나의 것’으로 고집하기 때문에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화를 내고 토라지고, 신경질·고함·눈물, 심지어는 주먹다짐까지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이 떨어지면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사랑없는 결혼, 이대로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갈라서기까지 합니다.
어찌 아내가 ‘나의 것’이며 남편이 ‘나의 것’입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삼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비극으로 끝맺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불행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애욕과 애착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애욕과 애착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애욕과 애착을 모두 다 버리면 근심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애착과 애욕이 무엇입니까? ‘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지금의 ‘내’가 재물과 이성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면 자기를 다시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지나친 애착과 애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
사랑은 인연의 모임이요, 재물은 주인을 찾아 흘러가는 것입니다. 인연이 다하면 사랑은 흩어지고 재물도 다른 주인을 찾아 흘러갑니다. 영원한 ‘나의 것’은 없습니다.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떠나는 것에 지나친 애착을 가지면 괴로움만 커질 뿐입니다. 오히려 돈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랑의 인연이 맺어졌을 때 ‘나의 것’이 되어 서로를 살리고 더 좋은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가져 애착의 굴레를 벗어난 지고 ‘나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생각을 놓아버리면 근심과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재물과 이성과 내가 모두 온전하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성에 대한 애욕과 재물에 대한 애착이 도를 망치므로 티끌만한 애착심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심(無心)해져야 하고, 무심해지기 위해서는 안과 밖을 한결같이 해야 합니다.
무릇 수행자는 자기 그림자에게도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양심을 자기가 지키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고자 해야 합니다. 물론 한없이 어려운 일이지만 안과 밖이 다르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안으로 먹은 마음이나 밖으로 행하는 것이 한결같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편집자 주>

좋은 것이 크면 클수록 나쁜 것도 크게 다가온다

‘내 것’이라는 애착이 기쁨을 괴로움으로 탈바꿈 시켜

불교 총지종 서울 경인 교구 지회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의 따뜻한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불교총지종 서울경인교구 신정회에서는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할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모우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나눔입니다.
나눔은 여유 있고 넉넉할 때 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돈을 번 다음에, 시간이 생겼 다음에 나누려고 하는 사람
혹은 나는 가난하여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 하는 사람은

사실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진정한 나눔은 부족함 속에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기간 : 항시 모집
인원 : 000명
대상 :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총지종 교도
문의 : 02-3452-7485

불교총지종 서울 경인교구 지회 합장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②

태장계만다라 '관음원(觀音院)'의
대수구보살(大隨求菩薩) · 솔도파대길상보살(率觀波大吉祥菩薩)

지난 호에서 성관재보살의 위에 있는 대명백신보살(大明白身菩薩), 마두관음보살(馬頭觀音菩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대수구보살(大隨求菩薩)과 솔도파대길상보살(率觀波大吉祥菩薩)에 대해 살펴 본다.

대수구보살(大隨求菩薩)

대수구보살은 태장계만다라의 관음원 가운데 제2행의 위쪽 제1위에 봉안된 보살이다. 대수구다라니의 공덕을 나타낸 것으로 중생이 구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그 고액(苦厄)을 없애고 악취(惡趣)를 멸하므로 수구보살이라 한다. 『비장기(秘藏記)』에 의하면, 수구보살은 관음보살의 변화신으로 이 보살을 염(念)하고 그 진언을 외우면 중생의 바램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대수구보살은 '커다란 호부(護符)를 갖고 있는 자'라는 의미이다. 그 호부를 가지고 중생이 구하는 바에 응하여서 재역(災厄)을 물리치게 하고 소원을 들어 주게 하므로 대수구(大隨求)라고 칭한다. 팔이 여덟 개로 되어 있다. 지니고 있는 지물(持物)의 상징은 대수구보살의 내증(內證)



대수구보살

째 손은 경전을 들고 있다. 밀호(密號)는 여원금강(與願金剛)이며, 삼매야형(三昧耶形)은 범협이다. 범협이란 연꽃 위에 경전을 올려 놓은 모습이다. 인상(印相)은 범협인이다. 진언은 '옴 바라 바라 삼바라 삼바라 인다리아 비쇼다네 훌 훌 로 사샤 사바하'이다. 뜻은 '옴! 가져오라! 가져오라! 이루어지게 하라! 제근(諸根)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며! 훌 훌 루루! 작용하는 것이며! 사바하!'이다.

솔도파대길상보살(率觀波大吉祥菩薩)

솔도파는 stupa를 음사한 단어로서 불사리탑(佛舍利塔)이라는 의미이다. 탑은 석존의 유골을 모시는 곳으로 존승되었으나 진언 밀교에서는 대일여래의 신체, 즉 법계탑과(法界塔婆)로서 숭배되었다. 덧붙여서 말한다면, 사리란 유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身)를 의미하기도 한다. 달리 이 보살을 대탑보살(帶塔菩薩), 대탑길상(戴塔吉祥)이라고도 한다.

이 보살의 존형(尊形)에 대하여, 『대일경소』에서는 두상(頭上)에 탑을 받들어 있고 있거나, 들고 있는 연화(蓮華) 위에 탑을 올려 놓는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만다라 상에서는 탑이 그려져 있지 않다. 단지 『불공전색경』에



솔도파대길상보살

대수구보살은 '커다란 호부(護符)를 갖고 있는 자'
솔도파대길상보살은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는 보살

으로서 대수구다라니를 비롯하여 여덟 종류의 진언과 인계(印契)가 전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대수구보살의 진언을 외워서 멸죄(滅罪)와 득자(得子)를 기원하는 신앙이 헤이안(平安)시대 이후 성행하였다.

이 대수구보살의 몸은 황색을 하고 있고, 여덟 개의 팔을 지니고 있다. 오른쪽의 첫 번째 손은 금강저를 쥐고서 가슴에 대고 있고, 두 번째 손은 밀로 늘어뜨려 검(劍)을 쥐고 있으며, 세 번째 손은 도끼를, 네 번째 손은 삼차건(三叉)을 들고 있다. 왼쪽의 첫 번째 손은 광염(光焰)이 있는 금륜(金輪)을, 두 번째 손은 밀로 늘어뜨려 윤색(輪索)을, 세 번째 손은 보당(寶幢)을, 네 번째

양손에 연화를 들고 반가부좌로 앉는다'라고 한 내용이 근거하여 그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보살의 밀호는 이익금강(利益金剛)이다.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는 보살이라 하여 이익금강이라 한다. 삼매야형은 개부연화(開敷蓮華)이다. 존형은 백육색(百肉色)으로 좌우의 손을 가슴에 대고 한 쌍의 개부연화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인상(印相)은 연화합장이다. 이 보살의 진언은 연화발생보살과 같은 진언이다. '옴 아리아사타파 마가사리 사바하'이다. 뜻은 '옴! 신성한 솔도파대길상이며! 사바하!'이다.

(자료출처 : 법정원)

생활속의 밀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처음이자 끝이다

▶ 사람이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축적된 나쁜 습관 때문이다. 탐욕과 성냄의 결과가 후회와 괴로움의 결과만이 있다는 것을 알지라도 막상 그러한 상황이면, 그것을 잊고 그렇게 행하게 된다. 그러한 습관을 바로 잡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수행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탐욕과 화냄, 게으름과 어리석은 마음에 굴복하여 지내기 때문이다.

▶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경전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미워함은 결코 미워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써만 미워함은 종식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스로 자신의 개인적인 양심의 행위를 중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미워함의 굴레에서 나올 수 있다.

▶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말씀해주고 계신다.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Karma)의 상속자이며 주인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해를 가할지라도, 그들은 고통 받게 된다. 우리 중생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때, 역시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된다. 우리 중생의 모든 것은 자신의 생각과 함께 일어난다. 성냄과 증오와 미움 등은 내 생각이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함께 일어난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자신의 세계를 만들게 된다. 만약 불순한 마음으로 말이나 행동을 해보자. 그러면 어려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마치 수레를 끌고 있는 소가 그 바퀴 자국을 남기듯이... 그러나 선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해 보라. 행복

이 그대를 따를 것이다. 마치 그림자처럼 항상 변함 없이... 모든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행위에 좌우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괴로움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영원히 행복하지 못한 데서 고통은 시작된다.

▶ 괴로움을 줄이기 위하여는 그 어떤 것에도 지나친 집착을 없애야 한다. 집착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집착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은 현재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것을 가지기 원하거나,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아주 수행을 잘 하는 사람이 되기를 지나치게 서둘러 원하거나, 정신적으로 출중하거나 남보다 박식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와같이 우리는 모든 것에 집착으로 일관하고 있다. 모든 것을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종 우리는 지금 현재의 자신에 대하여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단지 그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만이 못마땅할 뿐이다.

▶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노력하고, 힘들고 괴로움이 실제 어디에 있는지를 통찰하려는 대신에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되기를 꿈꾸고만 있다. 우리가 상상한 대로 그것을 가지거나 그 무엇이 되더라도 우리는 단지 그것처럼 다시 불만족스러운 상태로만 남게 될 뿐이다. 이것이 중생이다.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흠을 털어버릴 때 괴로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온과 함께 지혜는 내게 다가오게 된다. (법경/통리원 사무국장/연구원)

미워함은 결코 미워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써만 미워함은

종식될 수 있을 뿐이다.

진언수행의 길

"소원있어 정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불공 시간을 꼭 지키고, 용맹으로 정진하면 성취됨을 알지니라. 만일 시간 늦었거든 그로부터 곧 이어서 일찍 나오기로 다시 정진할 지니라. 새로 정진 못할 때는 하루 정진 더 할지니라. 정진중은 지족(知足)하여 분외탐심(分外貪心) 내지 말며, 정진중은 안인(安忍)하여 진애심(眞恚心)을 내지말며, 정진중은 인과(因果)를 믿고 우치사견(遇讎邪見)내지 말며, 정진중은 십선행(十善行)을 행하여서 십악업(十惡業)을 짓지 말라." 특히, 정진 중일 때는 항상 만족스러운 마음, 즐거

운 생각들을 내어야 한다. 정진 중에 나타나는 번뇌와 미장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흐리고 비운 뒤에 맑아지는 것과 같이 탁함 뒤에 맑아짐이 나타나는 법이다. 정진 중에는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도록 하라. 정진불공은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탐진치를 없애고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진은 이러한 마음공부를 하는 불공이다. 정진 중에는 악한 행동과 악한 말과 악한 마음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정진은 신·구·의(身口意) 삼업을 끊어 없애고 인격을 완성하는 공부이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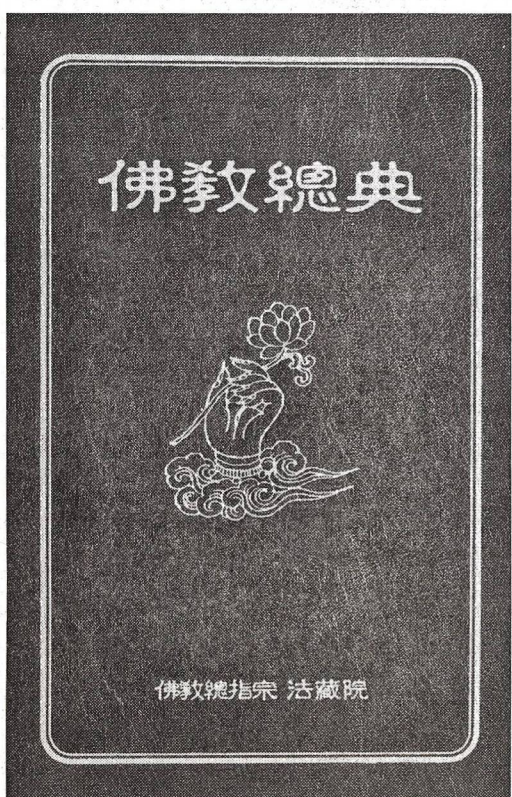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뽑았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교법(教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에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불교총지종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 논단

<기획연재>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

종조 원정 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중흥과 함께 초창기 진각종의 기틀을 다지셨고, 이후에는 의궤(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 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숨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유교(遺稿)를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고는 진각종 재직 당시 총인으로 계시면서 쓰신 내용이며, 곧 개편될 '원정기념관'의 전시 유품 가운데 일부 원고입니다. 앞으로 원고를 계속 연재할 예정이므로 종조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통해 '원정기념관'을 미리 둘러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집자주)

선지식

십주(十住) 십위(十位) 십회향(十廻向)의 삼현위(三賢位)를 설하여 가행방편을 밝히노라. 초발심으로 이기적 개인적인 소견과 좁은 욕심을 버리고 동포를 사랑하는 대비심(大悲心)을 말하는데서 중생은 범부지(凡夫地), 보통사람의 경계를 떠나서 보살의, 즉 중생을 위하여 사는 깨달은 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대비심이 머리가 되고 직심(直心)과 심심(深心), 즉 곧은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만 살아갈때에 우리 힘은 부처님의 협과 같은 것이요, 곧은 마음이란 거짓 없고 속없는 마음이고 깊은 마음이란 언제까지나 변함도 없고 다함도 없는 마음이란 말이요, 이 세가지 마음으로 하여서 우리는 여래종(如來種), 즉 부처의 씨가 되는 것이요, 이리하여서 한번 여래종에 들면 육도 만행(六度萬行)을 닦아서 필경에 무상정각을 얻어서 성불, 즉 내몸이 부처가 되는 것이니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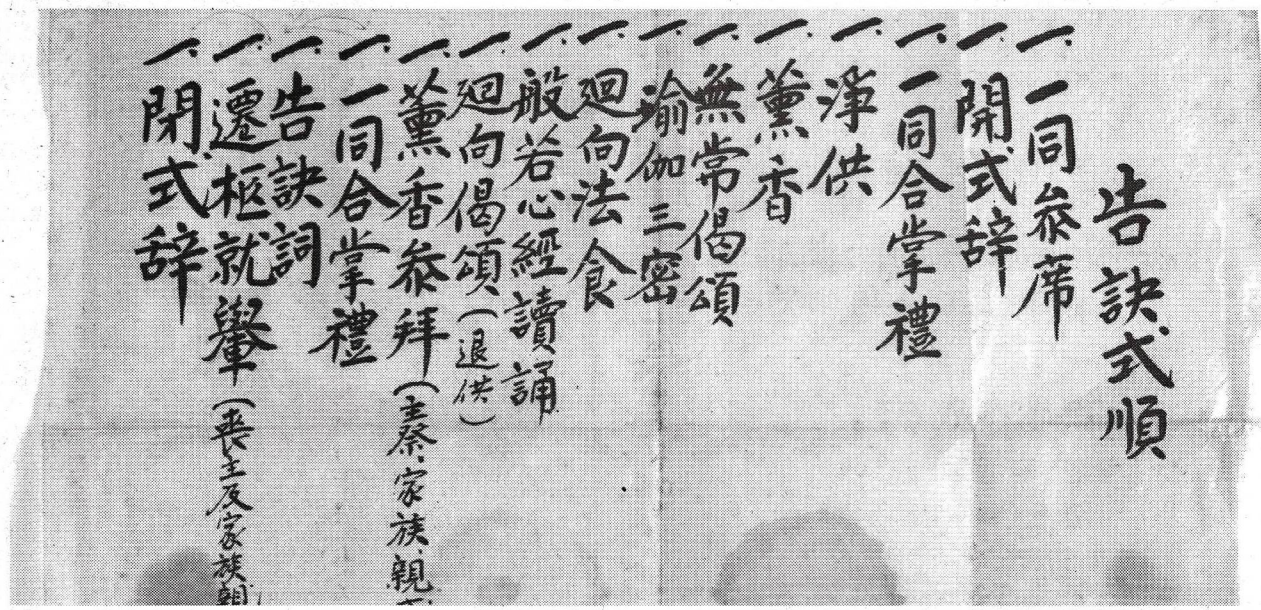
마음을 말할 때에 우리는 환희지(歡喜地)라 하고 여래종이라 하는 것이다. 이때부터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육도만행의 보살행이라. 나를 위하여서 하는 일이 아니라 중생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는 벌써 걱정·근심·두려움·무서움이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경계를 일러서 환희지(歡喜地)라 하고 여래종이라 하는 것이다. 이때부터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육도만행의 보살행이라. 나를 위하여서 하는 일이 아니라 중생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는 벌써 걱정·근심·두려움·무서움이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이른 것이다. 이렇게 되고서야 비로소 충(忠)도 하고, 효(孝)도 하고, 부부(夫婦)도 되고, 봉우(朋友)도 되고, 용사(勇士)도 되는 것이다. 나라는 생각이 있는 충효가 어디 있으며, 신의(信義)도 어디 있으리. 그러므로 불법(佛法)이 흥하면

단으로 싸고 진미로 가꾸더라도 이 몸은 조만간 쓰러질 몸이요. 그뿐인가. 이 몸의 오욕으로 인하여 나를 괴롭게 하고 중생을 괴롭게 하는 온갖 죄를 지어서는 무량겁에 지옥·아귀·축생의 보(報)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몸을 무엇에다 쓸 것인가.

있을 리가 없는 것이다. 서방정토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것이 만일 저 한 몸의 안락을 위하는 것이라 하면 그것은 사도(邪道)요, 불도(佛道)가 아니다. 나 한 몸의 안락을 바라는 자가 돌아갈 곳이 있으니 그것은 곧 삼악도(三惡道)이니라.



곧은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살때 부처님의 가지력 받음 선지식은 남의 허물 보지않고 입으로는 착한 것만 말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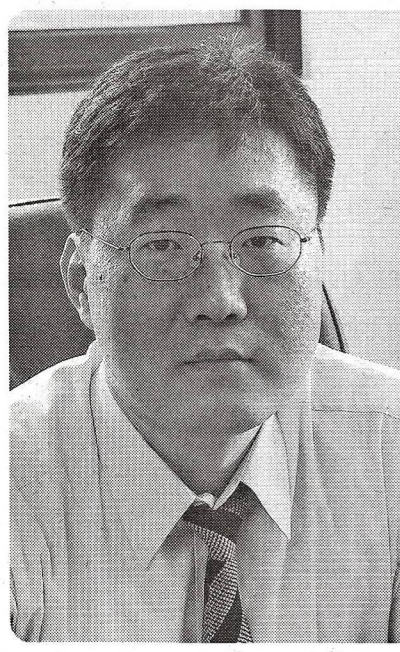
일러서 일체무애인(一切無礙人)·일도출생사(一出出生死)라 하는 것이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 사생멸법(是生滅法)이니 생멸법(生滅滅)하면 적멸위락(寂滅爲樂)이란 것도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적멸이란 저를 위한 모든 욕심

나라가 흥하고, 불법이 쇠하면 나라가 망한다 할 것이다. 원래 불법의 진면목은 이상, 즉 나라고 하는 것을 버리는데 있는 것이요. '나'란 무엇인가? 그것은 늙을 몸이요, 병들 몸이요, 죽을 몸이요, 썩어 없어질 몸이요. 이것을 아무리 비

나라에 충성하는 데, 부모에 효순하는 데에, 불쌍한 중생을 돕는 데에 쓸 것이란 말이다. 마치 기름으로 불을 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에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 한 몸의 복을 얻기 위하여서 불도(佛道)를 행하느냐? 그러한 불도가

선지식은 법과 같이 설하고 설한 바와 같이 행하는 사람을 말함이니 자기가 먼저 살생하지 아니하고 남을 가르쳐서 살생하지 않게 하며, 자기가 먼저 정견(正見)을 행하고 남에게 정견을 행케해야 참으로 선지식이요, 자기가 먼저 보리(菩提)를 닦고 능히 다른 이에게 보리를 닦게 해야 비로소 선지식이요, 자기가 먼저 믿고 계행(戒行)을 지키며 회사(喜捨)를 하며 널리 법을 들으며 지혜를 닦아 행하며, 또한 능히 다른 이에게 믿고 계행을 지키게 하고, 회사를 하게 하고, 널리 법을 듣게 하고, 지혜를 닦아 행하게 하여야 비로소 선지식이니라. 선지식은 착한 법을 가진 이라. 자기가 하는 일에 스스로 낙(樂)을 구하지 아니하고, 항상 중생을 위하여 나를 구하며 남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얘기를 하되 그의 잘못을 흠 잡지 아니하며 입에 항상 좋고 착한 것만 말하니 이를 선지식이라 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스승으로 하는 사람은 진정한 지혜의 법을 얻으며, 이익과 안락을 얻어서 모든 번뇌를 끊으며 능히 악한 데 가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며, 자기가 지혜있는 참승이 되어서 원만하고 청정한 도를 속히 증득하게 되느니라. (자료원: 총학연구소)



김장규 원장의 총지 동의보감

갱년기의 정신건강

갱년기는 일반적으로 40세에서 65세로 보편된다. 그러나 이 갱년기는 남녀 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취급받는다. 남자에게는 변화가 늘 조금씩 계속하여 있으므로 자타 모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의 경우는 남자에 비해서 좀 완연하게 변화가 나타나므로 40세 이후에서 필경에 잡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갱년기는 사회계층에 따라서

오는 시기가 다르다. 즉 상류층 사람에서는 갱년기 변화가 늦게 오고, 육체노동을 주로하는 계층에서는 일찍 오는데, 농사 짓는 집의 여성의 경우 40세면 벌써 늙은이 취급을 받기도 한다. 갱년기에 접어든 사람은 대개 다음과 같은 심리적 특징을 보인다. 첫째, 젊음의 거리를 느낀다. 전에는 자기도 위만 보고 지냈는데 이제 보니 어느 사이에 젊은 사람들과는 감정

적, 사회적, 문화적 면에서 큰 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둘째, 이 나이가 되면 여성은 아이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과거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위치에서 적극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해져서 가정 내에서도 발언

스, 조깅, 등산을 시작하기도 하고, 남편의 건강을 신경을 많이 쓰며, 좋다는 보약, 보신을 몰고 다닌다. 셋째, 공들여 키운 자식들은 모두 결혼, 직장, 학업으로 집을 떠나니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어머니는 마치 빈 동우

상으로 우선 신체적인 면을 보면 심계항진, 피로감, 경한 두통이 흔하다. 기타 흉조, 근육통 및 관절통, 식욕부진, 손발의 저림 등이 있다. 정신적인 면으로는 허무감, 우울증, 자살생각, 불면증이 있다. 그 중 불면증은 새벽 3-4시경에 깨어 버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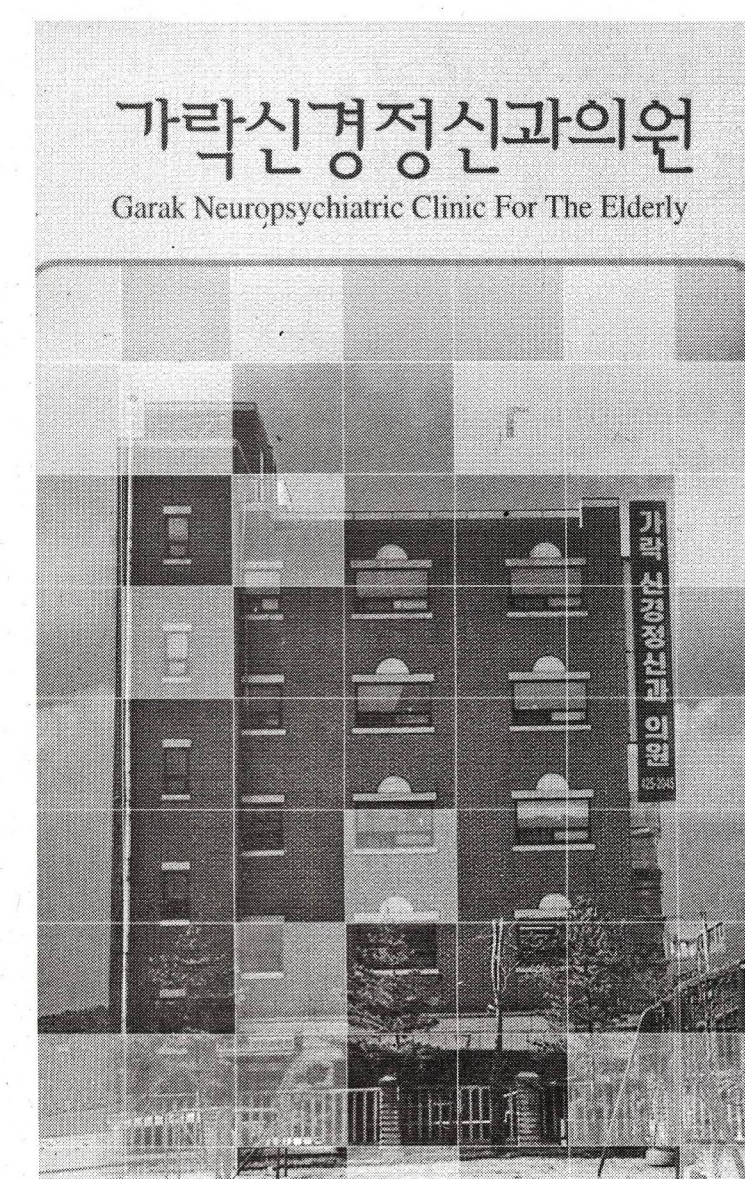
갱년기는 젊음의 거리감, 허전한 마음, 인생무상감을 신체적으로 심계항진, 피로감, 두통, 우울증 현상

권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다. 교육을 받은 여성의 경우는 자신의 교육격정을 끝내 놓고는 자유스럽다는 느낌이 들어, 못다한 재능을 발휘한다든지 아니면 부직을 찾아 나선다. 셋째,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쓴다. 테니

리에 앉아 있는 어미새 같은 허전한 마음과 인생무상감을 느끼는데 이를 '빈 새 동우리 증후군'이라고 한다. 다섯째, 폐경기가 오면, 3/4의 여성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체내 내분비계의 변화에 따르는 일시적인 이런 증

형태로 온다.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넘어 가는데, 소수 여자는 심해서 초초불안이 갖춰지게 되어 마침내 갱년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가락신경정신과의원 ☎ (02) 425-2045



강남 최초의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전문진료과목>

- ◆ 치매: 치매란 과거에 "노망"이라고 부르던 노인성 질환입니다. 중년까지 잘 생활하다가 노년 이후가 되면 기억력이 저하 길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몰라보는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웃을 입지 못하거나 식사도 할 수 없게 되는 뇌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기능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의식이 없어지거나 사지의 마비나 감각 상실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출입을 못하고 식사나 위생 등 일상생활의 유지에 주변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 노인성 우울증: 노년기에 흔한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하나로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및 흥미상실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고통스러운 질환이다. 상담과 약물치료를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나 본인이나 가족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절하게 치료되지 못하는 질환이기도 하다.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02)425-2045 fax : 02)423-1726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85

김장규 원장의 주요경력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2002년 박사학위과정 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년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진료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약도
8호선 송파역 2번출구

풍경소리

오줌 누는 자갈

농사에 경험이 없는 젊은이가 흙 속에 박힌 자갈을 전부 주워낼 요량으로 하루 종일 밭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말없이 지켜보던 동네 노인이 한 마디를 던졌습니다. "젊은이, 자갈이 오줌을 누는 법이래네. 자갈은 흙 속에 물기를 머금고 있다가 흙이 뜨거워지면 물을 내뿜어 수분을 조절해 주고, 땅에 숨구멍을 내주어 결과적으로 농사에 이로운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자갈이 수 없이 박혀있겠지요 그런데 자갈 틈을 하느라 정작 씨앗을 뿌릴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은지요. - 이명선/수필가

자신의 심지를 굳건히 하라

오늘부터 아니라,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서로 헐고 뜯나니, 말이 많아도 비방을 받고 말이 적어도 비방을 받고 비방 받지 않는 사람 세상에 없다.

비방만 받는 사람, 칭찬만 받는 사람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칭찬도 비방도 속절없나니 모두가 제 이름과 이익을 위한 것 뿐 - (법구경)중에서

너구리 새끼

어느날 원효가 대안(大安)대사를 만났더니 어미 잃은 너구리 몇 마리를 들고 있었다. 대안대사는 마을에 들어가 젓을 얻어 올테니 새끼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얼마 안돼 새끼 한 마리가 굶주려 죽었다. 원효는 너구리가 극악에 왕생하라고 아미타경을 읽어 주었다. 그때 대안대사가 돌아와 원효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이놈의 영혼이라도 왕생하라고 경을 읽는 중입니다." "너구리가 그 경을 알아 들었소?" "너구리가 알아들을 경이 따로 있겠습니까?" 대안대사는 얼른 너구리에게 젓을 먹이며 말했다. "이것이 너구리가 알아듣는 (아미타경)입니다. - 조오현 스님의 <벽암록 역해>에서

마음의 평화를 위한다면

조금 놓아 버리면 조금 평화가 올 것이다. 크게 놓아 버리면 큰 평화를 얻을 것이다. 만일 완전히 놓아 버리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을 상대로 한 그대의 싸움은 끝을 보게 될 것이다. - 아란 차 선사(태국스님)의 말씀중에서

이달의 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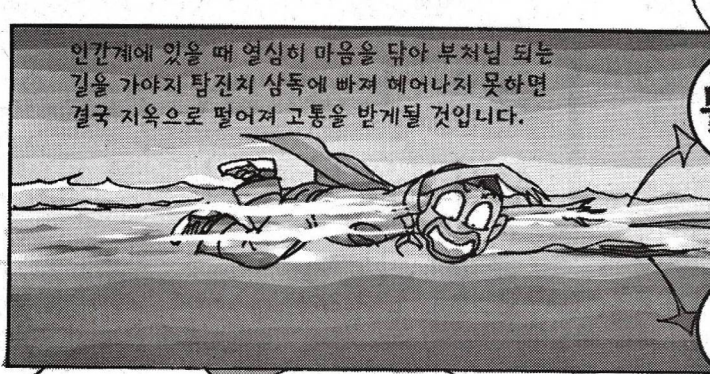
신심으로 전성성불을!

"육도가 오르내려 늙음을 재촉하고, 금까마귀 출몰하며 수명을 재촉하네. 명예와 재물은 아침의 이슬같고, 괴로움과 영화로움 저녁 연기 같은 것을. 그대에게 권하노니 부지런히 도를 닦아 어서 빨리 부처되어 미한 중생 제도하라. 금세에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지낸다면 후세에서 한탄함이 정녕코 끝없으리." 육도가는 달이고 금까마귀는 해입니다. 해와 달이 뜨고 질 때마다 우리는 죽음 앞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인생은 결코 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한 길은 바쁘고 또 바쁘습니다. 아침 이슬과 저녁 연기 같이 일순간에 흩어져 버리는 부귀와 영화들, 이 실체를 분명히 알아서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자기를 돌아보고 닦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마음자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면, 어느 일 년 사이에 마음자리인 자성불과 상응하여 앞뒤의 경계가 끊어지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도리를 체득하여 성불하게 됩니다. 그 때가 되면 한자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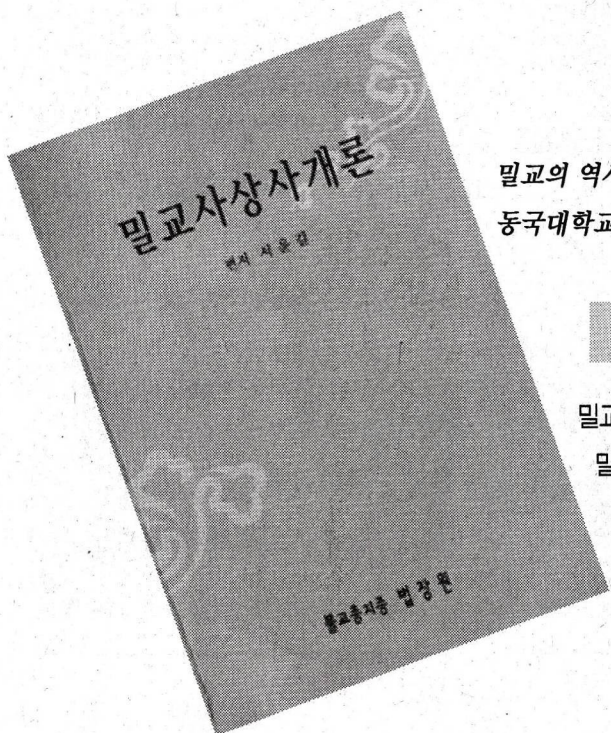
가만히 앉아서도 능히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자리 주인공을 믿고 분명히 닦아가면 틀림 없이 전성성불할 수 있습니다. 이 공부는 마땅히 평생을 두고 해야 할 공부입니다. 조금 해보고 잘 안된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이 오히려 더욱 중요합니다. 도를 깨달은 무수히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용맹심을 일으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달음은 다가옵니다. 한 세상 안태어난 썩치고 자성불, 마음자리 주인공을 밝히기 위해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잘 안될지라도 꾸준히 하다보면 반드시 트릴 날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소용돌이를 만나면 정체되지만 잠깐 맴돌다가 그 굽이를 빠져나가면 더욱 힘차게 흘러갑니다.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면서 거듭거듭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반드시 깨달음은 우리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주>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 밀교

~반야심경편 제 35화~ 글.그림/정수일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운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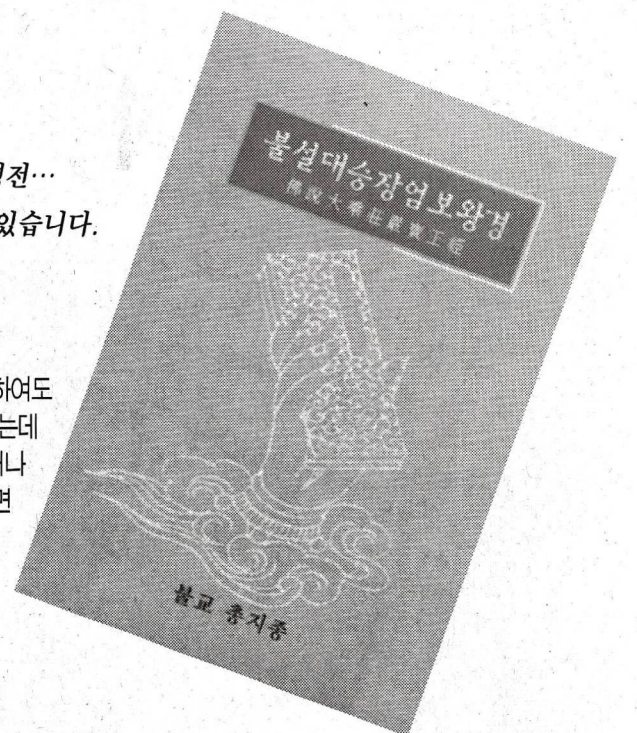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육자대명다라니 <음마니반메흠>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불교 총지중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세계속의 불교

Vajrayana Buddhism and Buddhism in Tibet (티벳의 밀교와 불교)

인터넷을 통해 세계속의 불교가 어떻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불교의 주요한 분류는 자가 해탈의 길인 소승과 더 크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있는 대승불교이다. 대승불교의 발전된 불교인 밀교는 금강같은 길을 나타내고 있다.

Vajra(금강)의 단어는 힌두교의 신화에서 유래되었고 신들에게 무기로 사용되었던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한 번개를 의미한다. 이것은 왕권과 비슷한 불교의 권위에 대한 목격물이 되었다.



밀교는 수행과 의식, 종교적 이미지, 그림, 음악 등에 탄트라방식의 영향을 받았고, 탄트라불교는 7~8세기에 인도에서 발전된 철학사상에 힌두교의 음악과 주법을 결합시킨 것이다

탄트라 불교는 육체와 정신의 세계를 융합하여 작용하는 것이다. 육체는 정신에 영향을 주고, 정신도 또한 육체에 영향을 주는 상호교류작용을 한다는 사상이다.

밀교는 현재까지 많은 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티벳에서 성숙하여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다.

티벳은 불교를 늦게 받아들였다. 인도에서 탄트라 학파에 다녔던 구루 립포체라 불리는 파드 마삼하바라는 인도 스님이 AD747년도에 티벳에

와서 티벳학교를 설립하였다.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한 후 많은 인도의 서적들이 티벳어로 번역되었다. 티벳은 불교를 공부하는 근원이 되었고, 불교가 왕들의 후원을 받아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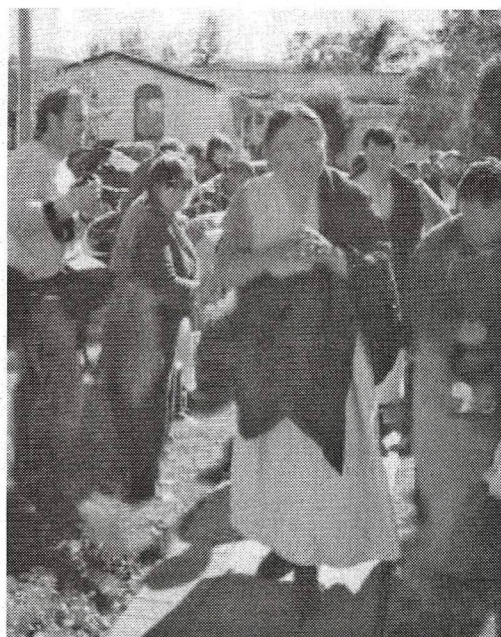
티벳불교는 많은 신과 악마들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우주를 나타내는 만다라라 불리는 의식적인 그림을 그릴 정도로 형형색색하다. 강한 냄새가 나는 향과 버터 램프와 큰 트럼펫과 심벌이 의식에 사용되고, 천과 인자한 가면을 쓴 춤꾼들이 스님들께서 복을 치고 염송하는 동안 영혼을 나타내고 보호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의식적인 춤을 춘다.

티벳에서 사용하는 염송은 연꽃속의 진주를 의미하는 옴나만메홍의 진언이다. 이 옴나만메홍은 티벳의 깃발과 마니보에서 자주 발견된다. 진주는 법문과, 부처의 언록을 상징한다.

밀교승은 수행하는 과정과 기간이 길며, 소승, 대승, 탄트라와 교리를 단계별로 공부한다. 20~30년의 수행과정을 거쳐야 밀교승은 라마라고 불리는 종교적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 티벳의 전통은 개인적으로 스승에서 제자에게 법맥을 전수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가장 알려진 라마중의 한 사람은 티벳불교의 정신적지도자이며, 불교를 발전시키고 티벳지역의 대변인인 제14세 달라이라마이다.



티벳불교는 달라이라마의 근원인 율회를 믿는다. 다양하고 고무적인 스님과 라마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일화를 가지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 스님들 중의 한 사람은 1040년에 태어나서 83세에 열반한 밀라레파이다. 그는 스님으로서 계를 받지 않았을 지라도 그의 삶은 성직자의 길을 걸었고, 많은 시와 음악을 만들었다. 그의 작품은 오늘날 널리 읽혀지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도 밀라레파라는 검색어가 불은 단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있다.

"나는 마음의 육체인 무지의 소산임을 이해하고, 육체와 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의식의 지각된 의식에 의해 빛을 발하게 된다. 해탈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하는 거대한 선택속에 놓여있다. 오직 속죄의 굴레에 얽매어 있는 사람은 저급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우리의 삶은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 법이다. 현재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우리는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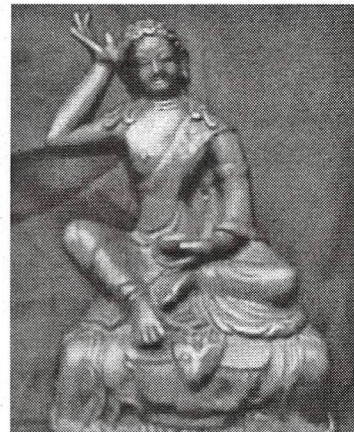
현재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선의 길, 악의 길을 걸어갈지 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밀라레파는 티벳에서 남마, 카큐, 샤카, 켈룩 네 개의 주요한 불교대학중에서 카큐대학의 창시자인 마라파의 제자이다. 달라이라마는 켈룩파의 정신적 지도자이다. 티벳의 밀교는 몽고, 시베리아, 네팔, 부탄왕국 등에 전파되었다.

오늘날 티벳의 네 개의 주요 불교대학은 활동적이며, 세계도처에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티벳의 성인들이 주석하는 수도원은 서양의 많은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정보매체를 이용하면서 인터넷상에서도 그들의 철학을 발전시키고 있다.

Dalai Lama (달라이라마)

1933년 제13세 달라이라마가 죽었을 때 새로운 달라이라마를 찾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 후 4년이 지난 뒤 두 살이 된 아이에게 새로운 증후가 나타났다. 그 아이에게 13세 달라이라마 물건과 다른 비슷한 물건을 보여주며 전 달라이라마의 물건을 선택하게 하였을 때 그 아이는 한번의 실수도 없이 전 달라이라마의 물건을 모두



선택하였다. 그의 나이 4살 때 라사로 데리고 와서 수행을 하게 하였다. 달라이(Dalai)는 몽고리아어로 '대양'을 의미하며 달라이라마는 '대양같은 지혜'를 의미한다.



달라이라마는 15세가 되었을 때 티벳의 정치적, 정신적 지도자가 되었다. 1950년에 중국이 티벳을 점령하였고, 1959년에 달라이라마는 티벳을 떠나 인도의 북쪽지역인 드람살라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1989년에는 '비폭력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한 그의 행동에 의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달라이라마는 『네 가지의 소중한 진리』에서 '동정은 법문의 핵심이며,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이타주의적인 사상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티벳에 있는 대승적인 길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일반 사람들이 정신적인 욕망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http://www.acay.com.au/~silkroad/buddha/h_tantric.htm 번역 : 김용주/총지종보사)

정보 다이제스트

미(美)대학 불교학생회 100여개 미래의 포교사 '요람'

미국 명문 사립대학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교학생회는 100개가 된다. 이들 모임은 불교에 대한 관심도와 함께 연간 회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은 졸업후에도 법사로 활동하거나 각 집단에서 불교 카운슬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여 년 전 프로비덴스 센터 출신의 동부 사학 대학생들이 중심으로 한 선에 대한 높은 관심은 현재의 눈 푸른 남자 현각, 무량 스님을 배출했다. 이후 현재는 자체적으로 대학 내 불교 모임에서 정기적인 참선, 명상을 통해 미래의 포교사 배출의 요람이 되고 있다.

미국 동부지역은 명문 사학이 밀집된 지역으로 하버드대 불교학생회가 대표적이다. 10여 년 전에 설립된 불교학생회는 현재 회원수가 100여명에 달한다. 부처님 오신날 등 불교적 행사 때 주조청을 중심으로 1화기에 5~6만 정도는 해외의 큰 스님들을 초청해 설법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구성원들 중에는 하버드 신학대학원 출신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자식에게 집되기 싫어" 노인 자살 급증세

노인 자살이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며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해 61세 이상 노인 자살 수는 3천 653명에 달해 3년 전인 2000년(2,329명)에 비해 무려 56.8%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자살자 수는 1만3천5명으로 10.3% 늘어나는데 그쳐 노인 자살자 증가율이 전체 자살자 증가율의 5.6배에 달했다.

노인 자살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자살자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2000년에는 노인자살자가 전체 자살자의 17.9%를 차지했으나 지난 해에는 그 비율이 28%에 달해 자살하는 사람 중 4명 가운데 1명이 61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인구중에서 6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12.3%인 점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노인 자살 비율의 2.3배에 달하고 있으며, 일별로 따지면 하루에도 10명의 노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청소년 20% 인터넷 중독 위험

세계 최고의 초고속통신망 보급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 100명 가운데 14명이, 청소년들의 경우는 10명 가운데 2명이상이 인터넷 중독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에서 세계 1위를, 인터넷 보급률은 스웨덴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의원은 "지난 7월 정보부와 정보문화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만 9세부터 39세까지 전국 남녀 2000명중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인터넷 중독자는 3.3%, 인터넷 중독위험이 있는 사용자는 11.4%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특히 만 9세부터 19세의 청소년들 중에서 중독으로 분류되는 고위험 사용자는 16%로 전체 대상과 비교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인터넷 중독 상담도 2002년 2,599건, 2003년 3,774건 그리고 올해 7월 3,58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중 중학생이 6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의원은 "이처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사례가 늘고 있지만 중독 예방상담센터의 상담인력은 고작 3명이고, 예산도 4억2,000만원에 불과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불교 여성성직자 비율 5위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우리나라 7대 종단 중 여성 성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가 유승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교 여성 성직자는 전체 41,232명 중 36.9%인 15,22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성직자 중 여성이 68.3%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천주교와 원불교(58.2%), 대종교(48.9%), 천도교(43.5%)에 이어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반면 기독교와 유교는 여성 성직자의 비율이 각각 26.0%와 8.2%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람수와 환산했을 때 불교는 기독교에 비해 두 번째로 여성 성직자가 많았다. 불교는 20,564명이라고 밝힌 기독교에 이어 15,224명을 차지했다.

전국 최고령 여자109세, 남자105세

우리나라 최고령자는 여자가 109세, 남자가 105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무엇이든 잘 먹는 습관과 낙관적으로 살아온 것을 확인됐다. 서울대 의대 박상철 교수팀은 노인의 날을 앞두고 주민등록상 전국의 100세 이상 노인 1,653명을 대상으로 실제 나이를 조사한 결과 최애기(109세, 서울 청운동)할머니가 남녀를 통틀어 최고령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음 최고령자는 최

할머니보다 9개월 늦은 엄옥근(109세, 대전 산성동)할머니로 조사됐다. 박 교수에 따르면 최 할머니의 주민등록상 출생일은 1895년 5월 10일로, 대전 엄 할머니보다 1년 여 늦었지만 이번 조사 결과 실제로는 최 할머니가 빨랐다고 밝혔다.

박 교수팀은 이번에 각 시, 군, 구,공무원들이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임을 확인해준 1,296명을 대상으로 태어난 때와 자녀관계, 80대후반의 자녀 유무, 시대상황 파악여부, 비슷한 연령대 이웃의 증언, 사회, 심리적 특성 등을 따져 실제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40대 이혼 사유 '배우자 부정' 최다

이혼자 100명중 16명은 배우자의 부정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선우 부설 한국 결혼문화연구소는 7일 1981년부터 올해까지 이혼자 3,128명을 대상으로 이혼 사유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의 부정은 성격차이(62.1%)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혼자 중 20대는 배우자의 '무능력', '무책임'을, 40대는 '배우자 부정'을 이유로 이혼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무능력, 무책임'을 이혼 사유로 응답한 사람은 20대가 10.7%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비율이 줄어 30대 초반이 9.9%, 30 후반이 7.8%, 40대 이상 6.7%로 조사됐다. 반면 '배우자 부정'은 40대 이상이 20.3%로 가장 많았으며, 30후반, 30대 초반, 20대순이었다.

선우관계자는 "2001년 이후 이혼자, 1996~2000년 이혼자, 1995년 이전 이혼자순으로 배우자 부정으로 인한 이혼이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며 "결혼기간 10년이상, 40대이상, 고졸학력 조사군에서 배우자 부정으로 인한 이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노인복지사업

-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 재가복지 사업
-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회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납골당 건립 추진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회원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단체회원 - 단체명의로 월 5만원 이상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 지로번호 : 7668610
 -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인터뷰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법경 정사

“포교, 신행, 복지”가 한데 어우러진 「종합수행복지타운」

지난 10월 강릉회 사회복지재단 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리원 사무국장인 법경 정사를 복지재단사무국장으로 선임하였다. 그 동안 공적으로 있어 왔던 사무국장이 선임됨으로써 종단의 복지사업 방향 설정과 사업전개에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사무국장을 만나 앞으로의 복지사업 방향에 대해 얘기를 들어본다.

(편집지주)



법경정사

▶ 우선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현재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단은 지난 1999년 대사회 복지사업을 종단차원에서 전개시켜나가기 위하여 종단복지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가장 큰 사업은 노인복지사업으로서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크게는 주간보호사업, 재가복지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운영은 말 그대로 심신이 허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돌봐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가정에 식사를 배달하고, 밑반찬 지원, 독거노인 도우미 서비스, 경로식당운영, 수지침서비스, 이미용서비스, 한방진료, 결연후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활후견사업'이 있습니다. 자활후견사업이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활기관에서는 봉제사업, 출장차량택배 및 세차사업, 청소용역사업, 자전거 이동수리사업, 산후 및 간병인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사무실은 본 종단의 통리원 2층 건물에 입주하여 일을 하고 있고, 작업장은 지하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총력을 기울여서 진행해야 하고 또 그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바로 종단의 모든 종사자와 교도 보살님들이 서원하는 '양로원과 납골묘 건립'입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종단으로서 이 사업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복지재단의 제일 사업으로 정하여 전개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먼저 종단에서 분명한 복지방향과 사업구상이 전무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종단의 정서와는 다른 위탁 위주의 사업만을 추진해온 담당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종단과 교도들이 원하는 사업구상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담당자나 복

지관련 실무자 입장에서는 열악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과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종단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진 방향만 고집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복지사업이 완전히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위탁사업은 위탁사업대로 진행하고 종단정서에 맞는 사업은 그 사업대로 진행시켜나가는 방법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재의 위탁사업은 그대로 가고



우선 종단에 필요한 사업을 전개시켜 나가고 차츰 그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된 지 벌써 5년째가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할 지?

우선 종단에 필요한 사업을 전개시켜 나가고 차츰 그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종단의 복지사업은 1차적으로 교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전개하고 그 외 함께 대사회적인 사업도 동시에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가지는 공구적인 목표는 선교, 즉 포교에 있고 복지는 그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하되 그 속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사업의 공구적인 목표는 불국 정도의 실현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복

지는 정신적 위안을 얻고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결핍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참다운 인간, 속박에서 벗어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복지는 곧 불교요, 불교가 바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원적으로 분리될 수도 없고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사회복지 재단과 비교하여 활동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한 인프라구축과 복지마인드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시라도 흉내내기 정도의 복지사업 또는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복지사업을 편안하게 전개해왔지는 않는

지 반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 환경 등을 탓하기 전에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정서와 마음가짐, 실천적 행동 등에 대해 본인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사업을 전개해나가는 사람은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없다면 복지사업이 제구실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한 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의 수급과 더불어 조직적인 운영체계가 확

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재단의 활성화차원에서 전문인력을 보충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사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서 복지재단사무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위주의 복지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복지재단사무국에서 직접 복지사업을 전개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들도 불공만으로 신행생활의 전부를 차지할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해 더욱 마음을 넓히고 하심(下心)도 배우고, 남을 도움으로써 얻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 일을 맡고 있어서 당장은 어렵지만 많은 준비를 해서, 제가 직접 못하면 역할을 분담해서라도 활성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에 뜻을 둔 교도들에게 복지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드리고, 교도자녀나 복지 전공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릴 생각입니다.

당장 사무국 직원채용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복지사업을 전개시키면서 직원채용이 불가피함을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게 열성적으로 일을 벌여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직원채용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전문인력은 자연스럽게 수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인력을 뽑아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리활용을 못하면 사람을 채용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 현재 사회복지재단에서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와 강남자활후견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와 강남자활후견기관의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고, 다만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는 5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한번 정도는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승단 내에서, 또 교도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재고(再考)를 해볼 시기라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좀 더 나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위해 종단차

“양로원과 납골묘 건립”이 종단복지사업의 최우선 과제 승단의 따뜻한 지원과 전폭적 지지를 통한 복지활성화

9면 계속

여성美 1조선회 원장

여성美 1조선회 원장은 다양한 치료법으로 여성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美 1조선회

-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불임, 임신오저(임뎃),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 비만 클리닉
 - 여성: 자궁 다이어트
 - 남성: 복부 다이어트
- ▶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 진료시간
 - 평◎◎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 주◎◎말: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점심시간: 오후 1시~오후 2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육아TV “전문의 상담”

안남대교, 신시역3번출구, 신시역1번출구, 도산대교, 잠췌동, 신안은행빌딩, 지하철도구 1분거리, 임방동행, STARBUCKS, 여성美1조선회, 강남역

생활역분석기, 자동광진단기, 초음파, 온열전기침, 저주파저리기, 좌훈욕기

8면에 이어

원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단차원에서 사무감사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고 재가노인복지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만간 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시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치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형태나 이유가 되었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복지센터 종사자가 소수이고 이직(離職)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소상하게 알아볼 필요도 있고 또 종사자들을 만나 면담을 할 생각하고 면담을 통해 고충과 여러 의견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와 강남자활후견기관의 운영에 있어 총지종의 의식 및 중지를 포고하지 못하고 있고, 총지종 교도들의 복지센터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승단의 따뜻한 지원과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승단의 동의 없는 정책(宗策)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승단의 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일선사원에서는 교도들을 위한

위탁 위주의 사업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부터 시작했으면 아주 좋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문제삼아봐야 소용이 없고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루빨리 양로원과 납골묘를 건립해야 합니다. 부지물색을 하고 있는데 좀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보살님들이 더 열반하시기 전에 빨리 해야합니다.

▶ 마지막으로 교화와 포교활성화차원에서 사회복지 활동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지재단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일단 현재의 복지재단의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전개는 다양하게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산하기관에 대해 검토와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양로원과 납골묘 건립'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종단이 추구해야 할 복지는 '포교, 신행, 복지가 한 데 어우르는' 종합수행복지타운 건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찰에 가면 불공, 신행, 레크레이션, 장례, 결혼, 노후생활, 휴향, 복지 등이 모두 해결되는 도량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이고 아주 먼 얘기가 아니라 시범적으로 도량을 지정해서 건립할 수 있는 불사라고 생각합니다. 대원(大願)을 가지고 용맹정진하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도합니다.

산하기관에 대해 검토와 중간평가를 실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 마련

습니다. 문제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려는 의지가 없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천해야할 위치에 있으면 당연히 실천해야하고, 추진해야할 위치에 있으면 추진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이 문제이므로, 실천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로원과 납골묘의 건립을 간절히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복지재단차원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마련해주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진행시켜야 했는데 어렵습니다.



아함경 이야기

기쁨을 음식삼아 살아간다

이 이야기도 역시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 계실 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관차사라(五羖)라는 마을에 잠시 머무르시면서 탁발을 나갔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사를 단정하게 걸치시고 발우를 들고 탁발을 하기 위해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침 그 마을의 축제일이었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축제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축제에 정신이 팔려 부처님께 공양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깨끗이 씻어두었던 발우를 그대로 가지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그 날은 탁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굶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일 일식이 원칙이며 정오가 지나면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탁발을 하지 못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굶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빈 발우를 들고 원래 계신 곳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때 약마인 마라가 부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문이며, 먹을 것을 얻었습니까."

"마라여,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마을로 돌아가 보시오. 이번에는 음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의연하게 마라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설사 얻을 바 없다 해도, 보라, 나는 즐기면서 산다. 마치 저 광명천과 같이 나는 기쁨을 음식삼아 살아간다.

광명천이라는 것은 바리문교의 신들 중의 하나인데 기쁨을 음식 삼아 살펴 말할 때는 입에서 맑은 빛이 나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해탈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 마음의 갈등을 느끼실 때는 늘 약마인 마라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번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시다가 순간적으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을 지도 모릅니다. '마을에 들어가 볼까? 지금쯤은 어쩌면 축제가 끝나 누군가가 음식을 공양할 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마라를 등장시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의연하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십니다. '밥 한끼 먹지 않아도 나는 해탈의 기쁨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거처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부처님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한 끼만 늦게 먹어도 난리가 납니다. 특히 수행자들이 식사 시간 좀 늦는다

고 역정을 내고 하는 것을 보면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배고픈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수행자와 범부의 차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처가 되면 배고픈 것도 없고 몸에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우리의 똑 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답고 추운 것도 느끼시며 몸이 아픈 것도 느끼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우처럼 마음의 갈등도 느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배고프고 몸이 아플 때 우리 범부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부처님께서 보여주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배가 고파도 못 참고 안달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늦게 준비해 주는 사람을 원망도 합니다. 그리고 배가 채워질 때까지 오직 그

는 보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금방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때려주던지 욕설이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보통 중생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런 욕설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저런 어리석은 중생의 죄업을 면하게 해 줄까를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가 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도 죄짓는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며 나쁜 짓하는 사람은 여전히 나쁜 짓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출현하셨다고 이 세상이 즐지에 극락세계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부처가 된 자신의 내면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죽어야만 그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지옥도 되고 극락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에 차서 누군가를 죽이도록 미워하고 있으면 그 순간이 아수라의 세계입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 잠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면 그 세계 바로 지옥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기를 사랑스러워 품에 안고 젖을 먹고 있는 그 순간은 자기가 관세음보살이 된 것입니다.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모를 때 그때가 곧 극락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자기가 이 세계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변하는 것이지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총칼도 찔 수 못하는 금강불괴의 몸이 된다는 이 세상에 약한 사람이 갑자기 다 사라지고 극락 정도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바뀌어 바깥의 반응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음에 의하여 지혜와 자비가 충만해졌을 때 지금까지의 세상이 나에게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불교 공부하면서 항상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지 못하고 오시면서 기쁨을 음식삼아 살아간다는 말씀의 의미를 회두 삼아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문이며, 먹을 것을 얻었습니까.”

“마라여,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마을로 돌아가 보시오. 이번에는 음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의연하게 마라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설사 얻을 바 없다 해도, 보라, 나는 즐기면서 산다. 마치 저 광명천과 같이 나는 기쁨을 음식삼아 살아간다.

광명천이라는 것은 바리문교의 신들 중의 하나인데 기쁨을 음식 삼아 살펴 말할 때는 입에서 맑은 빛이 나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해탈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 마음의 갈등을 느끼실 때는 늘 약마인 마라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번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시다가 순간적으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을 지도 모릅니다. '마을에 들어가 볼까? 지금쯤은 어쩌면 축제가 끝나 누군가가 음식을 공양할 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마라를 등장시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의연하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십니다. '밥 한끼 먹지 않아도 나는 해탈의 기쁨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거처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부처님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한 끼만 늦게 먹어도 난리가 납니다. 특히 수행자들이 식사 시간 좀 늦는다

고 역정을 내고 하는 것을 보면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배고픈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수행자와 범부의 차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처가 되면 배고픈 것도 없고 몸에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우리의 똑 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답고 추운 것도 느끼시며 몸이 아픈 것도 느끼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우처럼 마음의 갈등도 느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배고프고 몸이 아플 때 우리 범부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부처님께서 보여주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배가 고파도 못 참고 안달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늦게 준비해 주는 사람을 원망도 합니다. 그리고 배가 채워질 때까지 오직 그

는 보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금방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때려주던지 욕설이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보통 중생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런 욕설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저런 어리석은 중생의 죄업을 면하게 해 줄까를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가 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도 죄짓는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며 나쁜 짓하는 사람은 여전히 나쁜 짓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출현하셨다고 이 세상이 즐지에 극락세계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부처가 된 자신의 내면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죽어야만 그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지옥도 되고 극락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에 차서 누군가를 죽이도록 미워하고 있으면 그 순간이 아수라의 세계입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 잠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면 그 세계 바로 지옥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기를 사랑스러워 품에 안고 젖을 먹고 있는 그 순간은 자기가 관세음보살이 된 것입니다.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모를 때 그때가 곧 극락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자기가 이 세계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변하는 것이지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총칼도 찔 수 못하는 금강불괴의 몸이 된다는 이 세상에 약한 사람이 갑자기 다 사라지고 극락 정도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바뀌어 바깥의 반응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음에 의하여 지혜와 자비가 충만해졌을 때 지금까지의 세상이 나에게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불교 공부하면서 항상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지 못하고 오시면서 기쁨을 음식삼아 살아간다는 말씀의 의미를 회두 삼아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문이며, 먹을 것을 얻었습니까.”

“마라여,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마을로 돌아가 보시오. 이번에는 음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의연하게 마라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설사 얻을 바 없다 해도, 보라, 나는 즐기면서 산다. 마치 저 광명천과 같이 나는 기쁨을 음식삼아 살아간다.

광명천이라는 것은 바리문교의 신들 중의 하나인데 기쁨을 음식 삼아 살펴 말할 때는 입에서 맑은 빛이 나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해탈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 마음의 갈등을 느끼실 때는 늘 약마인 마라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번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시다가 순간적으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을 지도 모릅니다. '마을에 들어가 볼까? 지금쯤은 어쩌면 축제가 끝나 누군가가 음식을 공양할 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마라를 등장시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의연하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십니다. '밥 한끼 먹지 않아도 나는 해탈의 기쁨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거처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부처님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한 끼만 늦게 먹어도 난리가 납니다. 특히 수행자들이 식사 시간 좀 늦는다

고 역정을 내고 하는 것을 보면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배고픈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수행자와 범부의 차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처가 되면 배고픈 것도 없고 몸에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우리의 똑 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답고 추운 것도 느끼시며 몸이 아픈 것도 느끼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우처럼 마음의 갈등도 느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배고프고 몸이 아플 때 우리 범부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부처님께서 보여주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배가 고파도 못 참고 안달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늦게 준비해 주는 사람을 원망도 합니다. 그리고 배가 채워질 때까지 오직 그

는 보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금방 반응합니다.

〈이중석(화령)/법장원 연구원〉

불교방송 총지종 광고, 교리강좌 안내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
법신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무언의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아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승고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탁악세를 정확하고 무량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할 비밀의 문!
그 문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통밀교 불교총지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고기간 및 시간 (9/14~3/4)
오전 10시 30분, 오후 5시 30분

※불교방송 강좌 안내

- ▷ 프로그램명 : 불교강좌
- ▷ 방송시간 : 오전 6시 5분~6시 25분 / 오후 9시 5분~9시 25분(재방)
- ▷ 강사 : 화령 정사
- ▷ 방송기간 : 총기 33년 10월 11일부터 3개월간

BBS FM 전국네트워크	서울 FM 101.9MHz	청주 FM 96.7MHz
	부산 FM 89.9MHz	춘천 FM 100.1MHz
	광주 FM 89.7MHz	안동 FM 97.7MHz
	대구 FM 94.5MHz	포항 FM 105.5MHz

아제아제 바라아제

친환경 유기농 공양미 운동에 관심을...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지만, 어제의 추운 비바람에 비하면 천만다행으로 화창한 날이다. 오늘은 봉은사에서 2004년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가을 한마당'이 열리는 날이다. 여러 지역에서 각자의 활동방식으로 살아온 인드라망인들이 1년에 한번 다함께 모여 서로를 확인하고 격려하는 시간이다. 귀농하여 삶의 터전을 먼저 마련한 귀농학교 선배들이 정성껏 준비해온 농작물을 나누기도 하고 자연친화적 삶을 준비할 미래의 후배들을 만나기도 하는 시간이다. 또한, 여러 기관의 교육을 통해 인연이 된 사람들이 서로의 삶에 대해 진지한 담소를 나누는가하면, 그냥 함께 어우러져 대동놀이 한마당을 신나게 놀아 보는 때이기도 하다.

올 해는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작년 보다 수월하게 행사를 치르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볍다.

여러 프로그램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인드라망-봉은사간의 '친환경 공양미 협약식'이다. 봉은사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친환경농산물로 바꾸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마련에 인드라망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

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던 중 서울의 대형사찰로서는 처음으로 봉은사가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하여 이번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가을한마당 행사에 맞춰 협약식을 맺은 것이다.

무농약 쌀을 불단에 공양미로 올리는 일은 당장 눈에 보이는 바로는 보시자의 공덕을 높이는 개인신행 행위이지만 한 자락만 헤집고 들여다보면 그 행위 속에 함의 되어있는 다층적인 관계의 사슬을 볼 수 있다. WTO체제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시장개방 문제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있는 우리 농촌의 급박한 현실을 볼 수 있고, 자연친화적으로 살아보겠다고 시골로 향하는 귀농인들의 생계문제를 볼 수 있고, 땅과 물에 기대어 살아가는 수많은 뜻 생명들의 위대로운 생존조건을 볼 수 있다. 사실 우리사회가 단기간에 이루어낸 경제적인 성과 뒤에는 황량해진 농촌이 있다. 어쩌면 농촌의 잠재력을 빌어서 이루어낸 산업화라고 해야 더 타당한 말인지 모른다. 젊은 인력이 모두 떠난 지금의 농촌은 이미 그 생명력을 잃었다. 게다가 쌀 시장 개방을 요망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이는 농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렇다고 생명의 근간인 농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농업을 유지하면서도 동시 농업인들의 생계가 보장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유기농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재값을 받고 파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인식은 고령에 접어들어 시골농부도 이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선뜻 관행농법을 버리고 유기농법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유기농 인증을 받는데 걸리는 5년 동안의 준비기간 동안 치러야 할 비용이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며 또 대형 농장이 아닌 소규모 자영농으로서서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생산한 유기농산물을 제때에 판매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깊기 때문이다. 농산물은 그 자체가 생명체인지라 시기를 적절히 맞추지 못하면 생산에서 판매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업무 중에 안 사실이지만 봉은사의 연간 쌀 소비량은 생각보다 많았다. 그 정도라면 대략 만평 정도의 농토를 유기농 논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그 수를 전국로 사찰로 확대해보면 우리 불자들의 노력만으로도 적지 않은 땅이 농약의 시달림에서 벗어나 건강한 옥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땅이 살아나면 그 땅에 의지해 살아가는 농민들과 뜻 생명들의 삶이 안전해지고, 그 땅이 길러낸 농산물은 다시 깨끗한 먹거리로 돌아와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준다. 이는 인과론에 근거해서 상생의 화합을 강조하는 불교적인 이념과도 잘 들어맞는다. 다만 희망은 오직 우리의 관심과 실천 속에서만 현실로 자리나는 것임을 마음 한구석에 새겨 두자.

<김선미/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총무국장>

교계소식

불교를 통한 남북화해의 장 마련 금강산 신계사 낙성법회



남북한 불교계가 한마음으로 다시 세우는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의 낙성법회가 4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0일 강원도 고성 신계사지에서 봉행되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호계원장 월서, 교구본사 주지 스님, 중앙총회 의원 스님을 비롯해 금강산 관광을 주도한 현대그룹 회장은 회장, 현대아산 김운규 사장, 유홍준 문화재청장, 통일부 이봉조 차관, 열린우리당 김원웅, 배기선의원, 왁신 태국대사, 시인 고은, 한학자 김용욱씨가 동참했다.

도심사찰에서 저렴한 결혼식 봉은사, 불광사, 구룡사, 능인선원서 시행

최근 도심사찰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일반예식장은 비용이 많이 들고 고작 30분에 그치고 있지만 일반사찰에서는 저렴한 비용과 여유공간과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 사찰은 봉은사, 구룡사, 능인선원, 불광사로 저렴한 비용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며, 주차장도 무료, 필요한 경우 스님께서 주례를 맡아주시기도 하며, 사진, 비디오 등 일반 예식장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결혼상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어 일반 불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생과 사의 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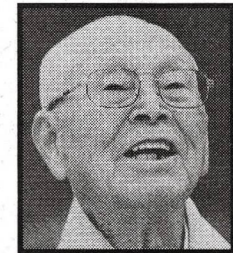
서양합작 불교영화 “삼사라” 개봉

독일, 이탈리아, 인도, 프랑스 4개국 합작으로 만든 것으로 인간의 세속적 욕망과 구도의 갈등속에서 갈등하는 내용을 그린 불교영화 “삼사라”가 국내에서 11월 26일 개봉됐다.

데 신계사 대웅보전 낙성법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 국보유적 95호로 지정된 신계사는 6.25때 모든 전각들이 소실된 상태이며, 2007년까지 만세루, 3층 석탑, 요사채 등이 연차적

“하심하고 정직하면 안 되는 일 없다” 조계종 원로 석주스님 원적



조계종 총무원장과 원로위원을 역임한 석주대종사 가 세수 96세, 법랍 81세로 11월 14일 아산 보문사에서 원적하여 18일 부산 범어사에서 원로회장으로 다비식을 엄수했다. 석주스님은 원적에 들기 며칠전 “부처님의 ‘열반경’이 임종계이거늘 어찌 임종계를 남기겠는가”며 열반송을 남기지 않았다.

석주스님은 1909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1923년 범어사로 출가했으며, 남전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스님은 총무원장과 원로회의 부의장, 개혁회의 의장, 포교원장 등

으로 복원될 예정이며, 장안사와 유점사에 대한 복원도 남북간의 협상을 통해 논의될 전망이다.

신계사 복원은 지난 2000년 평북협법 법타스님이 북한을 방문한 길에 조불련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논의됐으며, 2002년 4월 신계사 지표조사 보고서 발간, 2002년 12월 조계종과 조불련간의 합의각서 교환, 2003년 신계사 남북공동 발굴조사, 2004년 금강산 신계사 복원 착공식 등을 거쳐 완공을 보게 됐다.

복원 경비는 85억원 수준이며, 현재 조계종에서 파견한 신계사 주지는 제정 스님이 머물고 있으며, 북한의 관리원 7~8명이 절 운영을 하고 있다.

를 역임하였으며, 1975년 사부대중과 함께 “부처님 오신날”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포교와 역경불사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서울 철보사에 어린이 합창단을 창립하고, 대한불교청소년 연합회 교문으로 추대되어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또한 역경불사에 관심을 보여 “한글대장경”을 37년 만에 완간했으며, 한문보다 우리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스님이 주석한 도량은 대웅전을 “큰법당”이란 우 리말 현판을 달았다.

스님은 평소 “교육만 잘되면 전법, 역경 모든 것이 잘된다.”며 도제양성의 중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불교방송 청취율 비상 광고주협회 조사결과 최하위

불교방송이 라디오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청취율, 점유율, 선호도 조사에서 종교방송 7개 채널을 포함해 20개 방송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광고단체연합회가 지난 7월 9일부터 9월까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라디오 청취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4년 방송매체 수용조사'에서 드러났다.

선호하는 라디오 채널을 묻는 질문에 불교방송이 20개 채널중 꼴찌를 차지했으며, 연령대에서도 16세 이상 40대까지 불교방송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청취자는 전무해 젊은 층의 외면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점유율에서도 불교방송이 평일과 주말에 각각 0.07%를 기록해 평화방송, 원음방송에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속에서 겪는 갈등이 결국은 타위의 업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 자기 자신과의 내적 갈등속에서 방황하는 타위가 다시 예전 모습인 수도승으로 되돌아가고픈 인간 군상의 모습 즉 순환적인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영화를 압도하는 아름다운 영상은 모든 색의 조화를 고려해 제작했을 정도로 영상미가 뛰어나다.



강남자활후견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합니다.

근로능력은 있으나 기술력, 자본력 등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주요 사업

- 산후 및 간병인사업
저소득 환자 및 산모를 위한 간병인 도우미 무료 파견 (병원 및 가정으로 주 3회 ~ 5회 서비스 제공)
- 불제사업
전문교육을 통해 습득된 기술력으로 자활 및 취업
- 토탈크리닝사업
일반가정, 공공기관, 빌딩 등 전문적인 청소대행

- 차량 출장광택 및 세차사업
일반차량 및 관공서 차량 출장 광택 및 세차
- 기타사업
취업알선 창업지원, 지역사회지원사업, 문화교육사업, 지역조사사업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강남자활후견기관

서울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3454-0164, 전송 3454-0166



총지중 삼밀사 이수연씨 판소리 열창

부산 동초소리제 대춘향전 춘향역 열연



회 이사인 김정수씨가 이도령역을, 판소리부문 무형문화재 5호인 김정애씨가 방자역을, 원로 연기자인 허숙자씨가 변학도역을, 김혜리씨가 통인 급창역을, 조정례씨가 월매역을, 박은진씨가 향단역을 맡아 열연하였다.

춘향역을 맡은 이수연씨는 판소리부문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 부산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 예술대학 국악과를 졸업하여 판소리의 대가 오정수씨와 김정애씨의 맥을 잇고 있으며, 제9회 부산국악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

상할 정도로 판소리의 실력이 대단하다. 현재 동초소리제 판소리 보존회 부산. 경남지회 전수조교를 맡고 있다.

또한 총지중에서 열렸던 경로수련회 공연, 경로위로 잔치에 참석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춘향대전에 참석한 시민은 "불자인 이수연씨가 춘향역을 맡아 열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으며, 같은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고 말하였다.

총지중 삼밀사 총무인 지영순(일인해)보살의 장녀 이수연씨가 지난 11월 19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여성청무극 동초소리제 대춘향전에서 춘향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며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대춘향전에서는 판소리의 원로배우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판소리의 대가이며 한국국악협

내년 2월 총지중 찬불가 녹음·CD제작

"부처님의 법음을 온누리에"

총지중 연합합창단 대표단은 지난 11월 12일 대구 개천사에서 전국 합창단 단장 및 지휘자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지중의 의식곡과 찬불가를 녹음하여 CD로 제작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각 대표단은 이번 제작할 CD의 이름을 "불교총지중 전국 연합합창단 찬불가 1집(가칭)"으로 정하고 오는 12월까지 전국의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여 내년 2월 상반기 49일 불공전에 1박 2일 동안 합숙 훈련하여 녹음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총지중의 합창단은 부산의 만다라 합창단,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대구경북 합창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합창단은 종단의 행사와 지역합창제에 참가하여 모든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며 음성공양을 하고 있다.

또한 연합합창단 대표단은 "이번 CD제작은 종단의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며,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각 합창단의 교류와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총지중 합창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대표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하여 합창단의 발전을 논의하고 제2집, 3집의 찬불가를 제작하여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아름다운 음성으로 공양하는 보시를 실천하기로 하였다.

또한 종단내 합창대회를 마련하여 찬불가를 종단적으로 홍보하여 포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행체험 16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병고해탈



박순준(대원화) 보살
(개천사 신정회 회장)

저는 약 45년 전 그러니까 제 나이 27살 한창 젊은 시절에 심장병으로 인하여 진각종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병원마다 진단결과가 의하면 치료방법이 없으니 집에 가서 요양이나 하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후 3년이란 세월을 절망과 고통으로 시어머님의 방식으로 우치사건으로 별의 별 치료방법을 다 써봤지만 병은 날로 심해져서 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친정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친정 어머님은 진각종의 심인당에 다니셨기 때문에 저를 반겼게 맞아 주시면서 그때 겨우 백일을 남긴 아기를 어머님이 업으시고 포항 진각종 심인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심인당에는 복지화 스승님이 교화하실 때였습니다. 스승님께서 저의 딱한 처지를 들으시고 "불공으로 극복하라"는 법을 주셔서 그날부터 일체 모든 악을 끊고 불공에 정진하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실행하였습니다. 저는 오직 부처님께/저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불공을 시작하였습니다. 불공 3일이 되던 날 우연히 코에서 혈이 터지고 수족에 힘이 나면서 마비 되었던 부분이 움직이게 되고 음식도 조금씩 먹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용기를 내어 심인당 뒤편에 셋방을 얻어 약 2개월간 매일 사분정진하면서 열심히 불공하였습니다. 시집에 돌아와서는 오직 농사일을 천직으로 생각하시는 시어머님을 도우면서 자나 깨나, 몸마니반베훤진언을 벗삼아 생활하였고, 자성일에는 구룡포 심인당에 나갔습니다.

장날에는 버스를 탈 수 없어 왕복 60리 길을 절망을 머리에 이고 혹은 불공시간에 지각하지 않을까 하는 조급한 마음에 비싼 걸음으로 심인당을 다녔습니다. 심인당에 다니는 동안에는 한 번도 지각하는 일이 없이 오로지 부처님만을 믿고 다녀서 그런지 마음속에 가득한 환희심으로 절에 나갔습니다.

저의 병은 점점 더 호전되어 정상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정을 듣고 동네에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부인들도 심인당에 나가 용맹정진하여 병고해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 중 한 사람은 남편의 직장을 따라 부산으로 이사하여 정각사에 다니게 되어 병행법

회 때가 되어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의 병이 호전됨에 따라 저의 가정에도 생활의 활력을 되찾아 행복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님께서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불공하며 시골에서 15년 생활을 보내다가 1960년 대 말 교편으로 근무하시는 각자님이 포항으로 전근하게 되어 농촌생활을 청산하고 현 수인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 복지화 스승님은 서울로 이동하였고 후임으로 특정 정사님이 수인사 주교로 계시면서 저에게 주옥같은 법문을 주셨습니다. 항상 그 법문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열심히 수행하던 중 총지중이 창종되어 존재진언과 염주로 행하는 수행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여 총지중으로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1970년대 각자님이 대구시로 전근하게 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님을 모시고 각자님과 함께 개천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82년도에 농경지 사업으로 시어머님의 분묘를 이장하게 되었는데 그 때 수성 정사님과 삼정행 스승님께서 모든 절차와 불공은 물론 묘지 현장까지 직접 왕래 하시면서 도와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

지만 금년에는 대구경북교구 지회장까지 겸하게 되어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대구경북교구 지회는 각 사원의 신정회 회장 및 임원으로 구성되어 6개월마다 한번씩 모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사업 내용으로는 지회의 활동 방향에 대하여 협의하고, 종단의 행사에 적극 동참하며, 특히 불우이웃 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독거노인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현재 6개월에 1번씩 하는 모임을 3개월에 1번씩으로 정해서 서로간의 좋은 의견도 논의하며 상호간의 우의를 증진하고 사원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올해는 개천사에 유난히 국화 꽃을 많이 재배하여 가지각색의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 그윽한 향기로 지나가는 보살님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것은 지광 정사님께서 부지런히 노력하신 결과이고, 꽃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즉 보살님들을 항상 아껴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정사님과 스승님께서 불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고 특히 설법시에는 자비하신 표정으로 설하시는 그 모습과 매사에 적극적으로 용맹정진하시는 그 생활에 이곳 전당에서 불공하는 저희들도 환희심으로 가득합니다.

수행하면서 많은 공덕도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저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죽은 목숨을 살려주신 공덕, 그 공덕에 보

굳은 신심으로 불공을 통해 죽은 목숨 살아나 행복이란 가정의 화목과 건강이 우선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

답하기 위해 지금도 부처님전에 나와 불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의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부처님과 함께 생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총지중에서 수행하면서 종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행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시간 앉아서 수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녀들을 절에 데리고 오기가 힘듭니다. 또한 주 5일 근무로 젊은 사람들이 자성일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불공시간을 금요일 저녁, 자성일 오전, 저녁 등 다양하고 융통성있게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 1회 정도 분원 주최하여 전국 각 사원 신정회 회장단을 초청하여 신정회 운영에 대한 법회를 개최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하고 상호간의 정보교환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모쪼록 타 종단에 뒤 떨어지지 않게 모두가 자각해서 훌륭하신 스승님의 지도하듯 서로 도우며, 깨달음을 얻고 오직 총지중 발전을 서원하며 모든 교도들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전국의 모든 스승님들의 건강을 지심으로 기원합니다.

행복이란 오직 가정의 화목과 가족의 건강이 우선이며 항상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진실된 삶을 실천하는 것이 행자의 도리라는 생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은 삼남 일녀인데 모두 결혼해서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며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 오로지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 뿐입니다.

개천사에서 수행한 지도 30년이란 세월이 흘러 그간 총무직을 다년간 맡아 보면서 어려웠던 일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여러 보살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 덕분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은 여러 보살님과 스승님들께서 많은 수행과 더불어 부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항상 고마운 생각 뿐입니다.

현재는 개천사 신정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

나도 한마디

며칠 전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주머니 두분이 운동을 하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육신각신 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몇 분뒤 한 아주머니가 기분이 언짢았는지 운동을 하다 말고 헬스클럽을 나가 버렸다.

그 후 매일 아침 두분이 서로 다정하게 운동을 하던 아주머니 두 분이

한마디의 잘못된 말 때문에...

던 일 때문에 서로간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았나하고 생각했다. 옛말을 보면 "한 마디의 말이 천냥 빛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고, 부처님 말씀중에도 "구입이라 하여 거짓말, 이간하는 말, 남을 속이는 말, 남에게 해를 입히는 말을 하지말라"고 말씀하셨다.

주위 사람들을 보면 남을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때문에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말이란 자주하다보면 언

젠가는 실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남들이 헐뜯는 말, 이간하는 말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말속으로 동화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상대방과 같은 상태가 되어 남을 증상모략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한다.

말이란 마음의 표현이다. 진실된 말, 어진 말, 관용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을 다루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먼저인 것이다.

한마디의 잘못된 말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항상 말을 할 때는 후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나, 남을 이간하고 질투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나하고 살피며 말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말은 진정으로 소중하며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음을 알고 항상 바른 말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영숙/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마음을 찾아주는 60가지 이야기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선종(禪宗)의 탄생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60분 선사들의 삶이 여러분 곁에 다가옵니다!

글 박경일 · 그림 김정일 | 분량 260쪽
4×6 변형판 컬러인쇄 | 값 10,000원

"부처, 부처 하는데 도대체 부처가 뭐니까?"라는 제자의 물음에 어느 선사(禪師)는 "응, 그거 '마른 톱 막대기'야!"라고 했다.

세상에, 우주만물의 본성과 그 작용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고귀한 부처님이 겨우 톱 막대기라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망발이 아닐 수 없지만 선사들의 세계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일러 준 정확한 대답'으로 통한다.

- 머리말 중에서 -

*수련회, 각종 법회 등 불교행사시 법보시나 법우들간의 선물용으로도 최고!
*마음시리즈 1권과 함께 구입하시면 불교를 이해하는 데 더욱 좋습니다.

사원탐방은 교도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교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원들을 들려드립니다. 이러한 사원들이 다른 사원 교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02)552-1080 팩스: (02)552-1082

황령산자락의 밀법도량

부산의 명물인 광안리와 해운대 해수욕장을 바라보며, 드넓은 바다의 광활함을 기쁨으로 품은 채 앉아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황령산 자락의 밀법도량 자석사를 찾아가본다.

자석사의 연혁

자석사는 총기5년 부산시 남구 광안동에 주택 1동을 임차하여 유가사원당으로 개설하여 일념화전수를 초대 주교로 임명하였다.

총기7년에는 광안동에 대지 78평 건물을 매입하여 불단이설하고 자석사로 개칭하였으며, 총기20년 증축공사를 하였고, 총기29년에는 현 자석사로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총기30년 5월 23일 헌공불사를 하였다.

자석사에는 초대 일념화전수가 그 후 주신제전수, 하정정사, 법상인전수가 교화하였으며, 현재는 해안정 전수가 교화하고 있다.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법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 세 달 전에 제자들에게 "세 달 후에 반열반 하리라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큰 비구들은 아난존자에게 네가지 질문 사항을 일러 주었습니다. 첫째는 부처님 말씀을 곁집할 때 첫머리에 무슨 말을 써야 할 것인가? 둘째는 부처님 열반 후에는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하는가? 셋째는 모든 비구들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넷째는 교단 속의 성질이 교약한 악성비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이 네 가지 사항을 여쭙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악성 비구가 있거든 침묵으로 다스릴 뿐, 상대를 하지말라" 하시고 "비구들은 이 몸중이 부정한 것임을 생각하고, 인간이 즐거움으로 삼는 음행·재물·명예가 괴로움의 씨앗



는 법. 그 법이 누구에게나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한번 바르게 쓰면 나와 남을 모두 살릴 수 있고,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삼매를 이루면 능히 해탈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기쁜 일, 슬픈 일 등 모든 희노애락은 남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상태에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남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나의 마음속에 동요나 분노, 약한 감정을 일으키지 말고 항상 평정심을 가지며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면 나를 괴롭힐까? 하고 상대방에 대한 애민심을 가지면 오히려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보물의 창고는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리아타, 자각각타는 나도 풍요롭게 만들고, 남도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고, 나의 보물창고도 열고 남 또한 보물창고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갖고 있는 보물창고를 열 때 이 세상은 그대로 부처님 세

야할 일을 알아서 했기 때문에 그 집은 차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3년을 채운 날, 소가 사람의 음성으로 주인을 불러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저녁이면 이 집에 손님 오백 명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음식을 장만하여 그들을 잘 대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인은 소가 말하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여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하였고, 과연 이른날 저녁이 되자 오백 명의 손님이 밀어닥쳤습니다. 예사 손님이 아니라 칼과 창, 활을 메고 찾아온 도둑들이었습니다. 오백 명의 도둑들은 시장했던 차인지라 차려놓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 생각하니 이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지껏 도둑질을 하고 다녔어도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대접하는 일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울 줄을 미리 알았는가?" "저는 몰랐는데 우리집 소가 손님이 오니 준비를 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소가 알려주었다고?"

도둑들은 의양간으로 물려갔습니다. 순간, 교범바제 존자는 소의 곁질을 벗고 나오면서 도둑들을 향해 일장 설법을 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 교범바제이다. 3년 전 들관에 곡식이 누렇게 익은 것을 구경하다가 이 집 밭의 탐스럽게 익은 조를 손으로 만졌는데 잠잠 세일이 손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을 버릴 수 없어 먹고 소가 되어 3년 동안 이 집 농사를 지어주었다. 그런데 그대들은 어떠한가? 참과 칼로 남의 재물을 마음대로 강탈하였으니 몇백번 소가 된다 한들 다 값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에 감동한 도둑들은 참과 칼을 버리고 모두 발심하여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좋은 옷, 맛있는 음식을 기다리는 수행인은 숲들의 신세를 먼저 못하게 됩니다. 가져다 주는 사람은 복을 짓게 되지만 '나'는 그만큼 빚을 지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빚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떨어진 옷과 나물로 시주의 은혜를 가볍게 하여 음덕을 쌓아라. 금생에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 물도 능히 소화시키기 어려우니라."고 하신 것처럼 항상 중생의 은혜, 남은 은혜에 감사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1동 951-17
전화: 051-752-1892

인터뷰

자석사 주교 해안정 전수



해안정 전수

▶언제부터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처녀시절에 우연한 기회에 이모님을 따라 옛날 부산선교부와 인연을 맺게되었는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 부처님과의 인연은, 태어나기 전부터 맺어진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벅속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따라 석굴암 부처님을 본 사진이 있는데, 그걸 보면 전세에서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중생제도를 위해 이 자리에 있는것도, 이러한 인연에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전수님께서 교화하고 계시면서 나름대로 교화방법 및 수행철학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행철학이라기 보다, 그저 정병에 어긋남이 없이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보살님들께서 잘 알고, 따라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스승의 최우선 목적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에 남다른 방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생제도의 방편이라 하시니, 정말 어려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신을 제도하는 것도 힘드는데, 남을 제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중생제도의 방편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보살님들과 동고동락하며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항상 자신의 안락보다 남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용맹정진할 때, 중생은 제도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정과 가식적인 행위, 분별심, 시기 and 질투로 얼룩지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불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바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세상은 없다는 것, 상대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의 욕망에 빠져 많이 가지려 하고, 많이 소비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자제하고, 다 함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나의 허물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하겠는데, "상대가 내거울이라, 상대를 보고 나를 고쳐라"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상대허물 보일 때, 상대를 위해 축원해주는 맘을 일으키면, 상대도 복이되고 나도 복된다는 것을 아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대허물과 내 허물이 서로 맞대응하면 서로간에 수만만 생겨 무서운 업을 만들게 됩니다. 나의 잘못은 잘 덮어두면서 남의 자그마한



장경화 보살
<부산경남지회부회장>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된 동기?

제가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된 동기는 총지종 창종 초창기의 일입니다. 저는 범어사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인도하는 등 대보살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총지종에 가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는 말을 하며 같이 가자고 해서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는 궁금증도 있고 해서 자석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자석사는 조그마한 단독주택에 머리를 기른 아주머니(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몰라 여러동정하고 있을 때 아주머니(전수)가 반갑게 맞아주면서 불공하는 법과 지금은 불교종정인 책으로 되어 있지만 그 때는 종이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경전의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자석사에 입교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였습니다.

▶그동안 입었던 공덕은?

저의 소원은 1남 2녀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위에서 단명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이 많았지만 절에 다니면서 불공한 덕분인지 모든 자녀 및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여 각자 사회에서 자리잡고 생활하고 있으며 저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절에 다니고 있어서 그저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총지종에서 수행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제가 자석사에서 10년동안 신경회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저의 가족 및 친,인척 등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제도하여 해탈하는 모

잘못은 꾸짖고, 남은 잘 용서 하지 않으면서 내에 대해 관대한 것이 우리 중생입니다. 탐,진,치 삼독으로 덮여선 나를, 나라고 주장하지 말고 항상 이 마음을 닦고 허물을 벗어, 청정한 보리심을 찾아 바로보고 살아가는 불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원에서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교화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 지어서 '과' 받는 것은 하늘과 땅과 부처의 원칙이라, 착한 '인'을 지으면 착한 '과'를 받게되고, 악한 '인'을 지으면 악한 '과'를 받게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보살로 있을 때, 주위 스승님들을 힘들게도하고, 마음 아프게도 하면서 내가 지었던 '인'이 교화를 하면서 더 큰 '과'가 되어 내게 돌아왔을 때 힘들었습니다.

▶일선사원에서 교화하면서 보람된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부처님 도량에서 생활하면서, 부처님 일을 한다는 것이 좋고, 보살님들과 더불어 뛰어가면서 부처님의 법에 맞게 성숙해 간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보살님들 '원'이 이뤄져 기뻐하실 때 함께 기쁘고, 거저서 보람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지종 교도 및 자석사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로, 우리 총지종의 "음마니반메움", 이 보배 덩어리 마지막 가실 때까지 꼭 놓지 마십시오. 세세생생 하겠다는 신심으로 하신다면, 나날이 좋은날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 꼭 제도시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좋은법을 우리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부처님 법' 받들어 더욱 행복했으면 합니다. '부처님 법' 속에 행복해지는 법이 모두 들어있으니까요. "하루를 살아도 사람 살아가는 이치를 알고 사는 것이, 이치를 모르고 백년사는 것 보다 낫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듯이, 사람은 살아가는 이치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탐,진,치로 인해 망상에 덮혀서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것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만나면, 자비와 지혜가 열려서 바르게 살 수 있게됩니다. 자비와 지혜가 열리면 나도 부처요, 너도 부처요, 삼라만상이 부처라는 것을 깨닫고 진리에 순응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진리에 순응하게 되면,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어느한곳 소중하지 아니한곳이 없고, 은혜롭지 아니한곳이 없게 됩니다.

'복'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은혜알고 감사할 일어는 곳에 '복'이 있고, 은혜알고 감사하면 '복'은 저절로 들어와, 복된 가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살님들 모두 '이 법' 만난 것을 다시한번 감사하면서 용맹정진 하셔서, 보살님들 가정가정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공명이 증만하시길 서원드립니다.

자석사 교도 장경화 보살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된 동기?

제가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된 동기는 총지종 창종 초창기의 일입니다. 저는 범어사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인도하는 등 대보살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총지종에 가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는 말을 하며 같이 가자고 해서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는 궁금증도 있고 해서 자석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행하면서 증득한 점은?

사람은 인연법에 의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좋은 인을 지으면 반드시 좋은 과를 받게 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좋은 인을 짓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편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을 지라도 항상 절까지 태워다 주시고, 회사를 할 때도 새 돈으로 바꾸어 주시며, 자녀들도 제가 불공하는 데 있어 항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전생부터 부처님과 인연의 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 웃음을 가지며, 자신의 허물을 먼저 알고 좋은 인을 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은?

제가 총지종에서 음마니반메움을 만나 수행하면서 이처럼 좋은 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음마니반메움을 생각하며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총지종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아 조금만 마음만 간절합니다. 이렇게 좋은 진리를 빨리 보급하고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도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다보니 실버타운 같은 양로원과 남몰표가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지종에서 만든 양로원에서 생활하다 죽는 것이 저와 모든 노보살들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이러한 양로원과 남몰표가 존재함으로써 가족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을 생각하고, 늘 변화하는 마음이 무상한 것임을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고유한 실체가 없음을 생각하는 사념처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율로써 스승을 삼아라"는 말씀과 경전의 첫머리에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쓰도록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법이 다 구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롭게 한다.'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가는 것입니다. 살려가고 살아나

게로 바뀝니다. 이 세계가 그대로 영원한 진리의 몸인 법신의 세계로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수행인의 바른 삶

부처님의 제자 교범바제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계율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계율에 대해 명확히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 해율제일이라는 칭호를 얻은 분입니다.

어느 해 가을, 오곡이 무르익은 벌판을 거닐던 교범바제 존자는 오동통하게 무르익은 조가 너무도 보기 좋아 손으로 살펴서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잠잠 세일이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스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먹자니 남의 곡식이라 흉치는 것이 되고, 버리자니 아까운 곡식을 함부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버리는 것보다는 먹는 것이 옳을 것 같아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남의 곡식을 그냥 먹었으니 빚을 갚아야지 스님은 신통력으로 소로 변하여 그 밭에 서 있었고, 밭일자는 3일동안 지켜보아도 소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자기의 소로 삼았습니다. 그날부터 소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이 크게 애쓰지 않아도 소가 스스로 해

